VOL 90

HELLO NEXEN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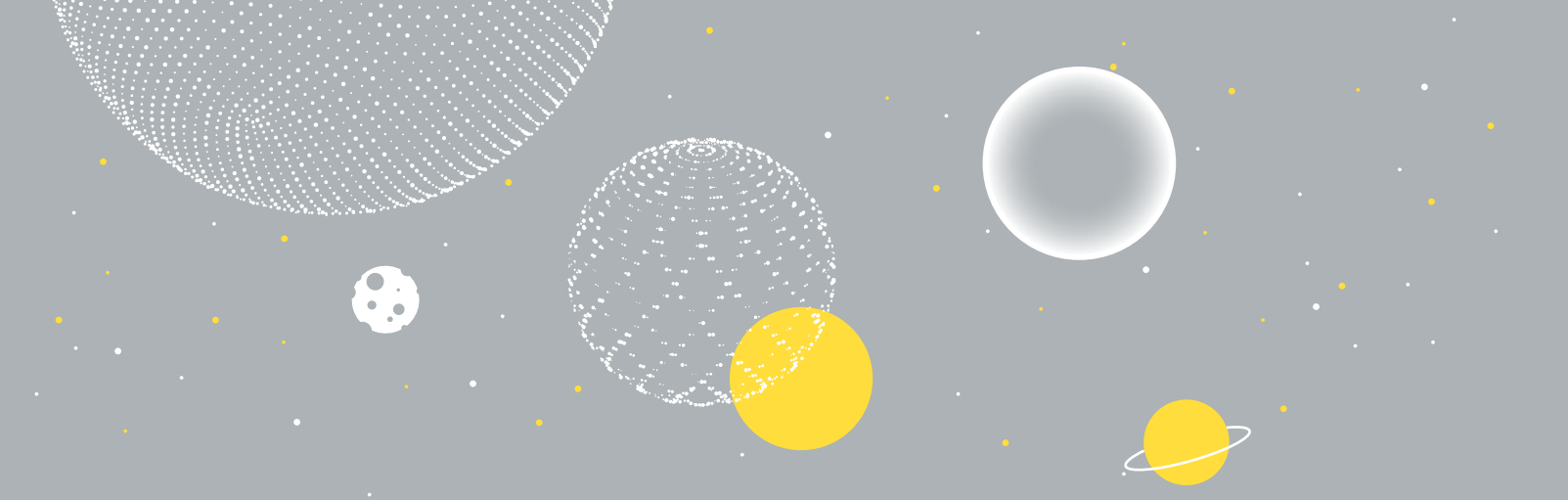
2023 NEW YEAR

STAR

우리가 옆에 있잖아, 나의 우주 넥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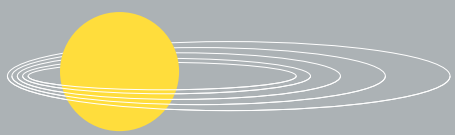
WE GOT YOU,
MY NEXEN UNIVERSE

헬로 넥센



STAR

그 옛날,
신라인은 왜 첨성대에 올라
하염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기록을 이어갔을까?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마음으로
매일 창 앞에 섰을까?
별을 동경하고 탐구하는 것은
고개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인간의 특권이다.
바쁜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밤하늘을 응시하며,
밝은 별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자.



www.nexentire.com

HELLO NEXEN MAGAZINE

2023
NEW YEAR

VOL 90

SPECIAL THEME : STAR

6	**오프닝**	2023년 넥센인들이 별에 바라는 소망은?
8	**과학 에세이**	천문대의 시간 천문학자의 하늘
10	**일상을 깨우는 여행**	별 헤는 밤을 추억하다
16	**넥센인의 pick**	밤하늘의 별, Counting Star

STATION 1

20	**ISSUE 1**	아빠와 함께 1박 2일
24	**ISSUE 2**	제2회 더넥센유니버시티 챔피언십
26	**ISSUE 3**	넥센타이어 x 아이더 협업 트레킹화 출시
28	**ISSUE 4**	'윈가드 스노보드팀' 창단
30	**ISSUE 5**	2022 Purple Awards
32	**ISSUE 6**	양산공장 체육대회
34	**ISSUE 7**	아마추어 골프대회 '엔페라 챔피언십'
36	**ISSUE 8**	더넥센유니버시티 2022 송년 음악회
38	**TIRE TECH**	타이어테크 포승점

STATION 2

44	**넥센 in Global**	넥센타이어 유럽공장
48	**포토제닉을 찾아라**	2023년 토끼의 해에는 깡충 뛰어오르세요!
52	**우리 가족 DIY**	청바지가 아기자기한 시계로 변신!
56	**NEXEN CSR 1**	연탄은 사랑을 싣고~ 사랑의 연탄 나눔
58	**NEXEN CSR 2**	대한적십자사 헌혈사업 유공 표창 수상
59	**NEXEN CSR 3**	취약 계층에 농산물 기부하며 이웃 사랑 실천

STATION 3

62	**컬처 가이드**	2023년엔 더 많이 읽고, 보고, 느껴요
66	**미래참견시점**	모빌리티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TaaS
70	**핫템 모아보기**	캠핑족 장바구니 속 핫템
74	**365 건강백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
78	**NEWS**	
82	**함께해요**	

헬로우 넥센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23년 1월 2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문화혁신팀
기획 및 출판 (주)대통기획
02-2269-3613
ISSN 2765-2904

친환경 환경부
헬로우 넥센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SPECIAL THEME

오프닝

과학 에세이

일상을 깨우는 여행

넥센인의 pick

VOL 90

2023
NEW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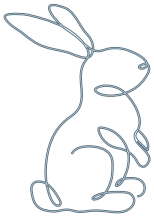
STAR

SPECIAL THEME

인류는 탄생 이래로 하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호기심을 키웠다. 넓은 우주를 수놓은 별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이름을 붙이고, 별자리에 서사를 더해
이야기를 만들었다. 별을 향한 호기심은
기술을 발전시켰고 기어이 하늘에 직접 오르고
별을 닮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넥센인들 역시 별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꿈을 소망한다.
그리고 그 꿈들이 모여 넥센유니버스를 이루고
새로운 비전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넥센유니버스가 구축된다.

밤하늘을 끝없이 수놓은 별을 보며 꿈을 투영해 보지 않은 이가 있을까? 별 하나에 사랑, 별 하나에 동경을 담아 소망과 꿈을 엮었을 것이다. 별을 따라 넓은 우주를 유영하는 상상도 펼쳤을 지도.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다. 반짝이는 별에 실어 하늘에 전하고 싶은 넥센인의 소망을 공개한다.

2023년 넥센인들이 별에 바라는 소망은?



새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꿈과 희망을 향해 다시 발돋움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 2023년은 재기, 극복, 행복으로 기억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용우 팀장 글로벌법인영업2팀

2023년은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표했던 나만의 리스트를 실행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긍정적인 2023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뤄지기를~~~ ㅎㅎㅎ

이선미 사원 Infra운영팀

저에게 2023년에는 체코공장 주재원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는 해입니다. 가기 전에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렵고 애들이 아프진 않을까 걱정되지만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듯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겠습니다.

유지수 책임 EP생산기술팀

검은 토끼의 해에 반짝일 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년엔 내가 해야 하는 것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줘.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여운 힘을 주렴!

이지혜 책임 전략기획팀

Twinkle Twinkle littel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넥센 가족 모두 빛나는 별처럼 기쁘고
희망 가득한 한 해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북이와 싸움에서 지는
토끼가 되지 말자고요!

곽재련 팀장 특성연구팀

긴 코로나 터널에서 많은
불편함과 제한적인 생활로 인해
답답함이 큰 기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가족,
지인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해외여행 및 문화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회사 경영 실적도
좋아져서 임직원분들께 많은 공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준수 책임연구원 제품평가팀

2023년에는 검은 토끼처럼
멀리 껑충! 도약할 수 있는
넥센타이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넥센타이어의 구성원으로서
도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동우 수석 품질보증팀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바라면서 별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별을 바라보기도
하겠지요. 별에 소망을
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망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
되거나 위안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삶이
힘들더라도 가끔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위안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이창훈 선임 글로벌영업기획팀

별똥별이 아닌 항상 중심에서 반짝이는 북극성처럼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무조건 잘 되고 2023년에는 오더가
넘쳐나 영업이나 생산 파트에서 바빠서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두 팀장 YP생산1팀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전달하는 교훈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나아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급함과 아쉬움을 멀리하고
관대함과 열정을 가까이한다면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이주희 사원 ESG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나의 딸 지안이가 벌써 태어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아직은 면역력이 부족해서
코로나19, 그리고 감기로
인해 밤낮으로 힘들어하던
모습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이런 건가 싶습니다.
올해는 지안이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상화 수석 (유)OE PM팀

글, 사진 전영범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천문대의 시간 천문학자의 하늘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볼 수 있었던 은하수의 화려한 모습과 초롱초롱한 별들을 기억한다. 이제는 도시의 밝은 불빛 때문에 보현산천문대에서도 이러한 밤하늘 풍경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멋있는 은하수를 볼 기회가 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때면 괜히 카메라를 들고 나와 하늘 사진을 찍는다. 결국 천문학은 별을 봐야 제 맛이다.

천문대의 하루, 별 보는 즐거움

천문대의 긴 하루는 아침 해가 떠야 끝난다. 나는 1992년 보현산천문대 건설이 시작되는 시점에 천체사진 관측 전문가로 합류했고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일부터 시작했다. 사계절 풍경과 밤하늘을 보면서 보현산 꼭대기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30년이다. 해발 1100m가 넘는 천문대에서 근무하면서 얻는 가장 큰 즐거움은 별을 보는 것이다. 밤에 연구실만 나서도 별을 볼 수 있어서 달이 없는 맑은 날이면 참지 못하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다. 추운 날씨에 별을 보려고 왜 그 고생을 하나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별을 보는 즐거움을 추위가 막을 수 없다. 별을 보는 그 자체가 그냥 좋다. 더불어 밤하늘 천체를 찾아내고, 기록하는 기술이 더해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좋은 작품을 얻으려 노력하듯 밤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낸다. 더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고, 더 멋지게 담고 싶은 욕심이 더해져 한밤의 추위를 이겨내고, 본 걸 또 보고 반복한다.

천문대가 사람이 적은 오지에, 그것도 높은 산 정상에 있는 이유는 도시의 불빛을 피하기 위해서다. 지금도 보현산천문대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밤에 밖으로 나가려면 손전등이 필요하다. 보현산천문대의1.8m 망원경은 계산상으로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계 등급인 6등성 별보다 400만 배 이상 어두운 별까지 관측이 가능하다.

하늘이 충분히 어두워지면 본격적인 관측을 시작하는데 이제부터는 지루함과의 싸움이다. 연구 주제에 따라서 밤새 정신없이 천체를 찾아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두 대상을 밤새 반복해서 관측하기도 한다. 내가 주로 하는 변광성 연구는 같은 대상을 반복해서 보는 '지루한' 관측이다. 하지만 관측 중에 시상이 바뀌거나 초점이 변하거나 날씨가 달라지면 좀 복잡해진다. 상황을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영상을 1장이라도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한다.

The Great Orion Nebula

Pleiades Open Cluster

우주를 향한 끝없는 질문

천문학은 실험이 없다. 대신 관측을 한다. 이는 천문학이 다른 자연과학과 구분되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빠른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천문 현상이 극히 드물다. 또한 대부분 대상이 너무 커서 지구에서는 관련된 실험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천문학에는 우주라는 거대한 실험실이 존재한다. 탄생 이후 지금까지 우주가 수행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의 결과가 하늘에 있다.

우주의 나이는 오차를 내포하지만 최근 138억 년(또는 137억 년)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주가 태어난 뒤 138억 년 동안 별과 은하의 탄생 등 수없이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진행된다. 그리고 실험의 결과가 밤하늘을 아름답게 빛내며 결과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숨어서 찾아주기를 기다린다.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우리 역시 명백하게 그 실험의 결과물로 탄생했다. 우주의 원소 중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별이 탄생하여 살아가면서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마지막 죽는 초신성폭발 과정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진 원소가 다시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가 점점 많아졌다. 그러니 우리도 결국 별에서 온 셈이다.

천문학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진 우주를 향한 호기심에 답하고 우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에 가능성을 키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천문학자의 소명이자 내가 속한 한국천문연구원의 중요한 임무다. 이제는 과학과 기술이 크게 발전해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많은 천문 현상의 관측이 가능해졌다.

여전히 도전할 연구 대상은 많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해도 1000억의 1000억 개가 넘는다. 은하 하나는 1000억 개 이상의 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은하가 우리 우주에는 1000억 개 이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연구자는 1조의 1조 개라고도 한다. 이들 별이 각자 모여서 만든 그룹, 즉 성단이나 은하, 은하단, 초은하단이 있고 각각의 별은 죽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한다. 이제는 별들 주위의 행성까지 찾는다, 겨우 수 천개 남짓 찾았을 뿐이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별에 행성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별 주변 행성은 또 얼마나 많을까?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는 행성만 해도 지구를 포함해 8개이고 명왕성과 같은 왜소행성과 위성의 숫자는 이제 세기도 어렵다. 게다가 소행성과 더 작은 물질들도 수없이 많다. 따라서 우주에는 적어도 별의 개수 이상의 행성이 존재하고 그 수에 억을 곱할 정도로 많은 별의 잔해가 있다고 보아도 과하지 않다.

천문학은 문자 그대로 하늘을 이야기하는 학문이다. 인류는 탄생 이래로 하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호기심을 키웠다. 천문학자로서 나는 "우리는 우주의 근원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과학으로 답한다"는 문구를 되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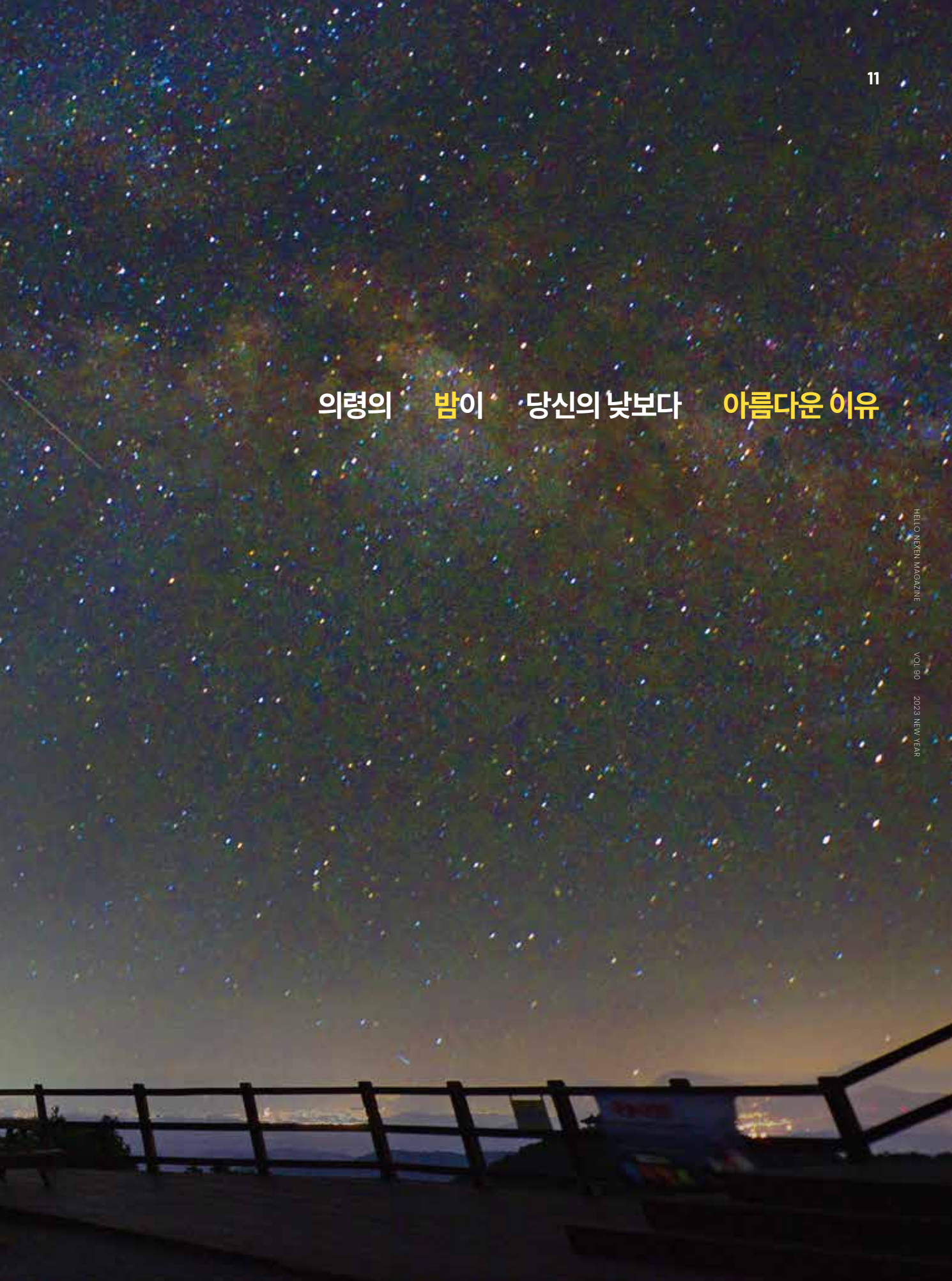
전영범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천문학자이자천체사진가다. 해발1124m 보현산 정상에 천문대를 건설하던 1992년부터 지금까지 보현산천문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변광 천체 탐색 연구를 하고 있다. 120여 개의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해 우리 과학자 10명의 이름을 붙였고, 1만 원권 지폐 뒷면에 있는 1.8미터 망원경의 도안 사진을 찍었다.

글, 사진. 정철훈(여행작가) · 사진제공. 의령군청

별 헤는 밤을 추억하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어른이 된다는 건, 은하수에 쪽배가 떠다니지 않고 달에 토끼가 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일이다. 그건 조금 슬픈 일이다. 하지만 도리가 없다. 아이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새해를 시작하는 1월, 남쪽 작은 동네 의령을 떠올린 건 순전히 이 '별' 때문이다.



의령의 밤이 당신의 낮보다 아름다운 이유

한우산에서 만난 별들의 추억

별을 보러 여행을 간다. 어릴 적, 저녁 먹고 평상에 누워 바라보던 별을 보기 위해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 여행을 간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골목과 도로에 가로등이 촘촘히 들어섰고, 상점의 간판들은 밤새 불을 밝힌다. 밤이 낮처럼 밝아진 세상. 그렇게 밤하늘의 별은 우리 곁에서 하나둘씩 지워져버렸다. '나 때는'으로 시작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나 때는 정말, 별 보러 여행 갈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의령에서 '별멍' 명당은 한우산이다. 마블링 촘촘한 한우(韓牛)가 아니다. 찰 한(寒)에 비 우(雨)를 쓴다. 그러니까 찬비가 내리는 산, 찰비산이다. 한우산 들머리인 벽계리 계곡을 지금도 찰비계곡이라 부르는 이유다. 개인적으로 한우산보다 찰비산이 훨씬 정겨운데, 왜 뜻도 잘 통하지 않는 한자 이름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한우산은 해발 800m가 넘는 제법 높은 산이다. 별을 보려고 고속도로를 4시간 이상 달려온 것도 모자라 등산까지? 아니다. 한우산은 산정 턱밑까지 차로 갈 수 있다. 길은 두 방향에서 한우산과 연결된다. 앞서 언급한 벽계리 쪽 임도와 쇠목재를 넘는 1013번 지방도. 쇠목재 방향은 현재 터널공사로 차량 통행을 제한해 현재로선 벽계리 임도가 한우산에 오르는 유일한 길인데, 굽이굽이 8km 남짓 이어진 임도는 내내 오르막인데다 길이 좁아 운전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우산에서 별 보기 좋은 장소는 한우정과 도깨비숲 그리고 산정이다. 한우정과 한우산 정상은 300m쯤 떨어져 있다. 오가는데 20분 정도 걸린다. 봄이면 철쭉이 무리지어 피는 도깨숲은 한우정 바로 아래서 시작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별멍 명소이다 보니 한우산 주변엔 그 흔한 가로등 하나 없다. 그러니, 기왕 나선 길이면 조금 서두르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어두워지기 전에 도깨비숲을 걷고, 산정 억새평원에서 해넘이까지 감상한다면 별을 보러 떠나온 여행길이 한층 더 풍성해질 테니.

한우산 정상, 해발 800m

한우산 도깨비숲(의령군 제공)

쇠목재 도깨비 설화를 바탕으로 꾸민 도깨비숲은 한우도령과 응봉낭자 그리고 도깨비 쇠목이에 얽힌 이야기를 다양한 조형물로 소개한 공간이다. 산책로 전체에 깔끔한 나무 덱이 설치돼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다. 익살맞은 도깨비 조형물은 포토 존으로 손색이 없다.

이젠, 별을 만날 시간이다. 어디에 자리를 잡을 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한우산 정수리에 올라 바라보는 별도 아름답고, 한우정에서 보는 별도 멋지다. 아니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 별에 집중하고 싶다면 한우정이, 의령 야경과 어우러진 별을 보고 싶다면 산정이 낫다. 한적한 산꼭대기에 오르면 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빛 공해가 적은 의령이지만 가로등과 상점 간판은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밤새 불을 밝히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우주에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기에. 10여 년 전, 중국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별을 본 그날처럼. 그날 나는 일행들과 모래바닥에 누워 밤새 술을 마시며 원 없이 별을 봤다. 그러다 누군가 "우린 지금 사막이 아니라 우주 한복판에 누워있는 거야"라고 말했을 때,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다. 우주라니. 그런데 사실이었다. 내 시선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곳에서 돋은 별들이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 반대편까지 빼곡히 들어차 있었으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하늘과 땅, 지구와 우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때의 감동이 지금 여기, 의령에서 다시 스멀스멀 깨어나는 듯하다. 솔직히, 망망대해 같은 모래사막에서 느낀 감동과 지금의 감동이 같을 순 없지만, 한껏 목을 젖히고 바라본 하늘엔 그날,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본 것과 같은 별들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지 않은가. 북극성도,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도. 그날 밤처럼 순식간에 꼬리를 감춘 유성도 몇 갠가 지나간 듯하고.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한우산 일대에선 6~7월이면 유영하듯 밤하늘을 떠다니는 반딧불이도 볼 수 있다는데, 반딧불이와 어우러진 한우산 밤풍경이 문뜩 궁금하다. 어쩌면 그 밤하늘이 궁금해 이 겨울이 가고 여름이 시작될 즈음, 다시 이곳을 찾을지도 모르겠다.

한우산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의령에서 만나는 또 다른 즐거움들

밤이 아름다운 의령이지만, 낮 시간을 이용해 돌아볼 곳도 많다. 일붕사도 그런 곳 중 하나다. 일붕사는 '왕오천축국전'을 쓴 신라의 고승 혜초가 창건한 성덕암이 그 전신이다. 거듭된 화재로 소실된 암자를 대신해 동굴법당을 만들게 되었다는데, 경내에 있는 두 곳의 동불법당 중 석가모니불을 모신 대웅전은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동양 최대 규모의 동굴 법당이다. 일붕사가 기댄 봉황대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 태종무열왕의 첫 요새가 있던 자리로, 1300여 년 전 나당 연합군과 백제군이 격렬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봉황대 중턱에 자리한 정자에서는 일붕사가 자리한 평촌리 일대가 한눈에 담긴다. 봉황대는 의령 9경 가운데 하나다.

의령은 별의 고장이자, 의병의 고장이다. 의령을 '의병의 고장'이라 부르는 건 곽재우 장군 때문이다. 임진왜란 당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 장군은 전장에서 늘 백마를 타고 붉은 도포를 입어 '홍의장군'이라 불렸다. 임진왜란 초기 곽재우 장군은 의병 50여 명으로 정암진에서 왜군을 맞아 대승을 거뒀다. 정암진 전투에서 사살된 왜군은 무려 2000여 명. 경상도와 충청도를 점령한 왜군의 전라도 진출은 정암진 전투의 패배로 좌절됐다.

곽재우 장군은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에서 태어났다. 낙동강에서 갈라진 유곡천이 앞에 흐르고, 고망산이 뒤를 받친 아늑한 곳이다. 2005년 복원한 곽재우 장군 생가는 조선 중기 남부 지방 사대부의 전형적인 가옥 구조를 하고 있는데, 솟을대문을 지나면 정면에 사랑채가 있고, 문간채와 나란한 담 너머 안채와 곳간채가 자리한다. 안채 옆으로 정갈한 장독대와 우물도 있다. 낮은 담을 사이에 두고 안채와 마주한 건물은 처녀나 새댁이 사용하던 별당이다. 의령 의병의 역사를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의령박물관을 찾으면 된다. 이곳에는 장검과 칼집, 말안장 등 곽재우 장군 유물(보물) 외에도 그의 휘하에서 활약한 윤탁, 오운, 이운장, 강언룡, 인기종 등 17장군 관련 유물을 만날 수 있다. 의병박물관 옆 충익사는 곽재우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일붕사 동굴법당

곽재우장군

곽재우장군 생가

일붕사

일붕사
경남 의령군 궁류면
청정로 1202-15

의령박물관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1-25 매주 월 휴무

의령전통시장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490-7

의령망개떡

의령소바

밤새 별 구경 하느라 출출해진 배는 의령 대표 먹을거리인 소바와 망개떡이 책임진다. 의병박물관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의령전통시장에 소바와 망개떡 파는 식당과 상점이 모여있다. 소바(そば)는 우리말로 '메일' 또는 '메밀국수'라는 뜻이니 '의령 소바'는 결국 '의령 메밀국수'인 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식 소바는 물론 강원도 막국수와도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길게 찢은 소고기 장조림이 고명으로 올라간다는 점. 의령 소바는 온면과 냉면, 비빔면 등 세 가지 맛으로 즐긴다. 의령을 대표하는 전통음식에서 망개떡을 빼놓으면 섭섭하다. 망개떡은 멥쌀로 만든 반죽을 망개나무 잎으로 싸서 찐 떡이다. 망개나무 잎에 떡을 싸서 찌면 떡이 서로 달라붙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망개나무 잎에서 배어난 향은 덤. 사실 망개떡을 싼 잎은 망개나무가 아니라 청미래나무 잎이다. 오래전부터 경상도에서 청미래나무를 망개나무라 불렀기에 지금까지 망개떡이라 부른다고. 떡 속에 넉넉히 들어가는 부드러운 팥소는 망개떡 맛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다.

의병박물관

일붕사 봉황대

정리. 편집실

설문기간: 2022. 12. 12~ 12. 14 / 참여자 172명

도심의 화려한 불빛과 네온 사인에 익숙해져 밤하늘의 별을 바라 본지가 언제인지 모를 일이다. 바쁜 일상에 지쳐 밤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와 낭만을 잃어버렸을 수도. 별에 관한 넥센인들의 답변을 보며 일상에서 한걸음 물러서 여유를 되찾고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길 바란다.

밤하늘의 별,

Q

별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나요?

유난히 반짝이는 저 별은,
인공위성?

43명 25.44%

기타	40명	23.67%
↳ 언제 우주여행을 갈 수 있을까? – 이지훈		
별멍...멍 때리기 - 강혜조		
어릴 적 별 보면서 이것저것 꿈꿨었지	36명	21.30%
저 별엔 대체 누가 살고 있을까?	26명	15.38%
나 자신아, 수고했어~ 오늘도!	24명	14.20%

COUNTING STAR

Q 함께 별을 감상하고 싶은 주변인은?

미래를 함께 꿈꾸는 동반자 — 109명 55.61%

기타	30명	15.31%
↳ 매일 같이 있지만, 말 한번 걸어보지 못한 나 자신 – 최임철		
천문학 전문가 – 노용준		
우리집 고양이 이호두 – 이혜윤		
영원한 동반자가 될뻔했던 PLM PJT 김지은 책임 – 신미진		
내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는 친구	24명	12.24%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님과 형제	22명	11.22%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동료	11명	5.61%

Q 별을 소재(우주배경)로 한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크리스 프랫) — 64명 39.26%

〈마션〉의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	32명	19.63%
〈스타워즈〉의 한 솔로(해리슨 포드)	23명	14.11%
기타	23명	14.11%
↳ 〈인터스텔라〉의 쿠퍼(매튜 매커너히) – 이수진		
〈어린 왕자〉의 B612에 사는 장미 – 방제현		
〈은하철도 999〉의 철이 - 이희석		
〈스타트랙〉의 제임스 커크 선장(크리스 파인)	21명	12.88%

Q 내 지인이었으면 하는 스타는 누구인가요?

함께 수다 떨고 싶은 국민MC 유재석 — 55명 31.79%

리빙 레전드 슈퍼 쏘니 손흥민	50명	28.90%
말해 뭐해! 월드스타 BTS	29명	16.76%
대한민국 최초 피겨여신 김연아	21명	12.14%
기타	18명	10.40%
↳ 국민 여동생 아이유 – 유민		
억만장자 빌 게이츠 – 박다민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의 주인공 적재 – 김도연		

Q 주변인의 스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항상 어디에서든 빛나는 자기 관리 — 60명 29.56%

어디에서도 주목받는 인싸력	49명	24.14%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개성과 스타일	48명	23.65%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실행력	33명	16.26%
기타	13명	6.40%
↳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한결 같은 모습 – 황성진		
불평 불만은 NO!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 김건호		

STATION

VOL 90

2023
NEW YEAR

넥센유니버스는
늘 새로운 도전과 설렘으로 가득하다.
별빛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자녀들과 캠핑을 하고,
함께 땀방울을 흘리며 동료애를 쌓으며
흰 눈을 배경으로 음악으로 힐링을 한다.
또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멋진 트로피를 건넨다.

HELLO NEXEN MAGAZINE

ISSUE

TIRE TECH

STATION 1

글. 편집실, 사진. 전재천 Studio TEAM

아빠랑 캠핑 갈래?

아빠와 함께 1박 2일

처음으로 엄마 없이 아빠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 아이들. 아빠들 얼굴에 걱정이 살짝 내려앉은 데 반해 아이들 얼굴에는 마냥 웃음꽃이 가득하다.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진행된 '아빠와 함께 1박 2일' 현장이다.

회사? 아니죠! 오늘은 우리가족 캠핑장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싱그러운 녹색 잔디가 깔린 이곳은 더넥센유니버시티 중정. 시티투어와 오피스투어를 마친 가족들이 텐트로 하나 둘 모인다. 지난 여름 캠핑과 달리 이번에는 엄마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엄마 없이 처음 자는 날이라 조금 걱정은 되지만 하연이와 규민이가 즐거운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저녁에 밥 먹고 바로 잠만 자는 재미없는 아빠였는데 오늘 점수 좀 따려고요." 엄마에게 달콤한 주말을 선물한 원료개발팀 김동욱 수석연구원의 표정에 비장함마저 흐른다.

5살짜리 딸 하린이와 단둘이 캠핑에 참가한 PLM PJT 소속의 이준경 책임도 마찬가지다. "딸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서 그런지 낯설어 하지 않아 다행이에요. 엄마와도 1층에서 쿨하게 빠이빠이 인사했답니다. 물론 밤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걱정도 잠시. 엄마 없이 텐트를 꾸며야 하는 미션을 받은 아빠들의 손놀림이 바빠진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역시나 할로윈 소품들이 눈에 많이 띈다. 주황색 호박 등과 보랏빛 가랜다가 초록색 잔디와 어울려 가을 운치를 더한다. 꾸미기보다는 실용성을 최우선시한 가족도 있다. 낮에는 따뜻한 햇살 덕분에 아이들이 뛰어놀기 적당하지만 밤에 온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방한 용품을 꼼꼼히 챙겨 넣는다.
이렇게 스무 가족의 1박 2일을 책임질 개성만점 텐트들이 하나 둘 완성됐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한 시간여에 걸친 텐트 꾸미기가 끝나자 중정 한편에 아이들 키를 훌쩍 뛰어넘는 커다란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등장했다. 바로 이번 캠핑의 백미인 가을 명랑 운동회에서 활약할 공들. 본격적인 운동회에 앞서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진 두 팀은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텐션을 끌어올렸다. 덕분에 아빠들은 평소 숨겨뒀던 춤 실력을 간만에 발휘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후문이다.

운동회의 첫 경기는 30m 이어달리기. 제일 키가 작은 3살 어린이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친 결과 청군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어진 큰 공 옮기기에서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은 백군이 승기를 잡았다. 2인3각 경기는 사이좋게 무승부를 기록.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우렁찬 응원 소리가 어느덧 중정을 가득 채웠다.

지난 5년간 주재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6월에 국내로 복귀한 글로벌법인영업1팀의 이원석 책임은 캠핑 행사에 참가하는 소감이 남다르다. "아들 서진이랑 다리를 묶고 2인 3각 경기를 하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일하는 곳도 보여주고 특별한 추억을 쌓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영업3팀 부산권역 송현영 책임도 시우, 지우 남매를 위해 부산에서 먼 걸음을 했다. "언제 또 기회가 될까 싶어 신청했는데 당첨돼서 기뻤습니다. 서울 온 김에 할머니도 보고 간다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런 행사를 더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공 굴리기, 볼풀 공 싸움, 줄다리기까지 치르고서야 중정을 뜨겁게 달궜던 가을 명랑 운동회가 마무리되었다. 양 팀은 어느새 승부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운 경험에 푹 빠졌다. 마음껏 소리 지르고 신나게 뛰어다닌 아이들은 이후 아빠와 함께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재미있는 영화까지 관람한 후 가을 하늘을 수놓은 별빛들을 이불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날의 즐거운 경험이 훗날 가족의 행복한 추억으로 자리 잡길 바라면서 말이다.

글. 편집실, 사진. 전재천 Studio TEAM

함께여서 더 즐거운 '진검승부'

제2회 더넥센유니버시티 챔피언십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속에서 주고받는 랠리, 순간적으로 상대의 리듬을 흩어버리는 시간차 공격,
온몸의 힘을 실어 날리는 짜릿한 스매싱, 녹색 테이블 위에서 2.7g의 공을 주고받으며 겨루는 탁구. '핑...퐁, 핑...퐁'
경쾌하게 울리는 소리를 따라, 선수도 지켜보는 동료들도 '함께' 즐기는 진검승부가 펼쳐졌다.

승부의 현장으로 변신한 더넥센유니버시티

2022년 10월 25일, 더넥센유니버시티 1F 로비가 치열한 승부의 현장으로 변신했다. '더넥센유니버시티 챔피언십'은 탁구를 통해 임직원의 화합을 도모하는 어울림의 장이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두 번째 대회에 무려 88명의 임직원이 참가, 대회를 향한 임직원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직급이나 나이, 부서와 상관없이 함께 땀 흘리며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3년 만에 열린 대회를 준비하면서 동료들과 많이 웃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내 동호회를 통해 꾸준히 탁구를 즐기고 있다는 구조연구부문 김성래 부문장의 탁구 예찬이다. "그저 탁구가 좋아서" 참가한 이들이지만,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본선에 오른 만큼 목표는 '승리'다. 직접 만든 플랜카드를 들고 열띤 응원을 보내는 동료들의 함성에, 승리를 향한 집념은 강해지고 경기장의 열기는 뜨거워진다.

'함께'여서 더 즐거운 축제의 장

BS 대항전으로 진행되는 남자 단식과 복식, BG 대항전으로 진행되는 혼합복식. 3, 4위전에 이어 1, 2위전까지 총 6경기가 차례대로 펼쳐졌다. 가로 152.5cm, 세로 274cm의 녹색 테이블 위에서 직경 40mm의 작은 공이 오갈 때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기쁨의 환호와 아쉬움의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온다. 경쾌한 핑퐁 소리, 환호와 탄식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기를 여러 차례, 반 박자 빠른 회심의 스매싱이 테이블 구석에 꽂혔다. 마지막 환호성의 주인공들이 결정되고, 경기장은 멋진 승부를 펼쳐준 모두를 향한 우렁찬 박수로 가득 찼다. 승자와 패자,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던 동료들까지 모든 임직원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제2회 더넥센유니버시티 챔피언십'의 하이라이트는 시상식 후 식당에서 진행된 즐거운 뒤풀이 시간.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과 열띤 응원을 펼친 동료들이 함께해 '짜릿했던 승부'의 여운을 즐겼다. 승리를 향한 진검승부와 시원한 맥주와 맛있는 음식, 동료와의 즐거운 대화가 함께한 축제의 장. '제3회 더넥센유니버시티 챔피언십'이 기대되는 이유다.

mini interview

혼합복식 우승팀 : 글로벌OE영업 BG

김현석 BG장 • 전 직원이 스포츠를 통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준 주최 직원들, 멋진 파트너가 되어준 신예정 사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신예정 사원 • 입사한 지 이제 2달 된 막내가 서열 1위인 BG장님과 파트너가 되어 멋진 경기를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멋진 넥센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글. 김희진 책임 문화혁신팀

타이어와 트레킹화의 이색 만남

넥센타이어 x 아이더 협업 트레킹화 출시

넥센컬쳐 TV
영상 보러가기

NEXEN TIRE × EIDER
we got you

넥센타이어가 지난 10월 28일 국내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아이더와 함께 타이어 컴파운드를 활용한 트레킹화 4종을 출시했다.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무 부산물을 트레킹화 밑창(아웃솔)에 적용하며 이색 협업을 진행한 것.

협업을 통해 출시된 제품은 살레 하이브 TT, 라이트 하이크 TT, 노마드 라이트 TT, 권텀 네오 레더 TT 등 총 4종으로 넥센타이어의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는 컴파운드 물성을 그대로 적용해 어떤 지형에서도 최상의 접지력과 내마모성을 선사, 안정적인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넥센타이어와 아이더는 협업 제품 출시를 기념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했다. 해당 제품을 아이더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구매 시 추첨을 통해 넥센타이어 제품 할인권을 지급했다. 또 넥센타이어 유튜브 채널 '넥센컬쳐TV'를 통해 해당 제품과 모바일 음료 쿠폰을 증정하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협업은 넥센타이어 사내 제안제도인 N'dea의 최우수 수상작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로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무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 ESG 경영 관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협업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글. 김희진 책임 문화혁신팀, 사진. 전재천 Studio TEAM

이제 동계 스포츠다!

'윈가드 스노보드팀' 창단

2022년 11월 1일 넥센타이어가 알파인 스노보드팀인 '윈가드 스노보드팀'을 창단하며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에 나섰다.

창단식은 넥센타이어 강호찬 부회장, 이현종 사장, 넥센타이어 윈가드 스노보드팀 현병준 코치 및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진행됐다.

윈가드 스노보드팀은 이상호, 홍승영, 권용휘 등 우수한 실력을 가진 총 3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특히 이상호 선수의 경우 2021/22 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부 종합 순위에서 랭킹 포인트 604점을 기록, 한국인 최초로 시즌 종합 우승을 거둔 종합랭킹 세계 1위 선수다. 홍승영 선수는 2022년 주요 전국대회 평행회전에서 좋은 성적을 선보였으며 권용휘 선수 역시 2021년 전국스키대회에서 평행회전/대회전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넥센타이어는 선수들의 유니폼을 비롯해 보드, 헬멧 등을 통해 브랜드를 노출하고 스노보드를 활용한 아카데미 운영 및 일반인 대상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동계 스포츠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뛰어난 실력을 가진 국내 스노보드 선수들이 2026년 이탈리아 동계 올림픽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더 나아가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등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넥센컬쳐 TV
영상 보러가기

NEXEN TIRE
we got you
X
NEXEN
WINGUARD
SNOWBOARD TEAM
넥센 윈가드 스노보드팀 창단식
NEXEN WINGUARD SNOWBOARD TEAM
일시 : 2022년 11월 1일 화요일
장소 : THE NEXEN univerCITY

글. 정재환 수석 문화혁신팀

도전과 실패에서 배운다

2022 Purple Awards

'퍼플어워즈'는 2022년 처음 도입된 시상 제도로 회사의 비전과 핵심가치가 수행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하여 '도전, 창의, 협력'이라는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퍼플어워즈는 두 개의 시상 분야로 나뉜다. 첫 번째는 'Go, Best' 부문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프로젝트 성공사례를 시상하고, 두 번째 'Try Again' 부문은 아쉽게 실패했지만 과감한 도전에 대한 응원과 격려를 담아 시상한다.

퍼플어워즈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바로 각 BG에서 2명씩 총 16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직원평가단'이다. 이번 퍼플어워즈에 Go, Best 부문 35건, Try Again 부문 15건으로 예상보다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어 업무 처리에 심사까지 평가단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1차 심사는 평가단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신청자에게 직접 문의해가며 심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 각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 신청서에 대한 부가설명과 한계점 등 열띤 토론이 열린 끝에 2차 심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엎치락뒤치락' 말 그대로 평가단 한 명, 한 명의 점수에 따라 순위가 확확 바뀌었고 결국 동점자가 발생해 3차 심사까지 이어진 접전 속에 드디어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지면을 빌려 '공정의 아이콘' 직원평가단에게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Go, Best 부문 1위 레이싱타이어개발팀, RE개발1팀, 컴파운드개발팀

직원평가단 회의

Go, Best 부문 수상 명단

순위	내용	수상자
1위	레이싱 타이어 개발 및 포디움 성과	**레이싱타이어개발팀** 허진 팀장 이준형 책임연구원, 윤재호 선임연구원 **RE개발1팀** 심혁 팀장 **컴파운드개발팀** 한상욱 팀장 최임철 책임연구원, 송창윤 선임연구원
2위	사이드월 듀얼 디자인 도입으로 USP 창출 및 매출 증대	**상품기획팀** 박기석 팀장 임범준 수석, 김인혁 책임
3위	흡음재 수주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방안	**IOP팀** 김동욱 수석 **설비지원팀** 권오준 선임

Try Again 부문 수상 명단

순위	내용	수상자
1위	스터드 타이어 기술력 강화 및 매거진 테스트 상위권 진입을 위한 노력	**RE개발2팀** 김대현 팀장 임은모 책임연구원
2위	뉴 래디얼(모노벨트) 타이어 개발을 통한 시장 선도자 위치 진입	**구조연구팀** 김민수 책임연구원, 박광호 선임연구원
3위	보유 시스템 자원을 활용한 Order Visibility 확보	**SCM팀** 변태상 팀장 박승기 수석, 임정희 책임

Try Again 부문 1위 RE개발2팀

심사위원은 아니었지만 취합 과정에서 자연스레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며 흔히 하는 얘기 중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평가단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몰랐다', '회사에 천재가 정말 많은 것 같다'라는 평가로 회의장이 채워졌다. 사실 여부가 궁금하다면 2023년 퍼플어워즈 직원평가단에 지원해 꼭 확인해 보길 추천한다.

수상자를 인터뷰하며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다.

"명단에는 없지만 많은 팀들과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았고, 여러 난관을 함께 뛰어넘었는데 저희만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구성원들이 어우러져 서로 협업하고, 고민을 거듭하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무리다 싶을 정도의 도전을 끊임없이 넘어서고 있는 우리 넥센인들. 그동안 회사에서 수많은 교육을 거듭했던 핵심가치인 '도전, 창의, 협력'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는 걸 이번 퍼플어워즈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상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불어 비록 수상자 명단에 들지는 못했지만 도전과 창의, 협력을 무기로 오늘 하루도 고군분투하고 계신 모든 임직원 분들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짝짝짝짝짝!"

글. 팽치훈 책임 (YP)노사협력파트

땀방울로
진하게 맺은 뜨거운 동료애

양산공장 체육대회

지난해 10월 16일 넥센타이어 양산공장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하기 위해 체육대회 및 야유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만에 개최된 야유회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했으며 부서별 경합을 통해 동료애를 쌓고 단합을 증진했다.
풋살, 등산, 족구, 당구 등 단합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체력도 증진하고 동료애를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YP)금형관리파트

(YP)물류운영팀

(YP)품질검사팀

(YP)UHP 파트

글. 김희진 책임 문화혁신팀

넥센타이어 공식
유튜브 보러가기

국내 최고의 아마추어 골프 듀오를 찾아라!

아마추어 골프대회 '엔페라 챔피언십'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GC에서 지난 11월 7일 '엔페라 챔피언십'이 개최됐다. 엔페라 챔피언십은 넥센타이어가 골프 마케팅을 강화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시키기 위해 마련한 2인 1팀 아마추어 골프 대회다. 지난 10월 대회 참가자를 사전 모집하고 신청자 중 208명(104팀)이 선정되어 대회에 참여했다.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순차 출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시상식 또한 별도로 수상자에게 찾아가는 시상을 진행했다. 시상은 총 13개 항목으로 단체는 스트로크, 신페리오 및 베스트 드레서를 시상, 개인은 메달리스트,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남녀를 시상하는 등 많은 참가자가 수상의 영예를 누릴 수 있게 했다. 또한 성적에 따라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 '넥스트레벨 GO' 이용권, 다양한 골프 용품 등을 제공했다. 대회 현장 모습을 담은 스케치 영상은 넥센타이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2023년에도 골프와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KLPGA 넥센-세인트나인 마즈터즈 대회 개최 및 대회와 연계해 타이어 구매 고객 대상 '넥스트레벨 골프데이' 행사를 기획 중이며, 하반기에는 제2회 '엔페라 챔피언십'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글. 편집실, 사진. 임근재

추운 겨울 힐링을 선사한 따뜻한 선율

더넥센유니버시티 2022 송년 음악회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12월 21일 더넥센유니버시티에서 송년 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느라 고생한 임직원들이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다가오는 2023년을 좀 더 특별하게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개최됐다.

첼리스트 박장근을 비롯한 바이올리니스트 배시온, 김도윤과 비올리스트 맹진영으로 이루어진 현악 사중주단과 소프라노 최우영이 아티스트로 초청돼 한 시간 동안 황홀한 선율을 선사했다. 18세기 유럽 귀족들이 기분 전환을 위해 연주했던 '디베르 디멘토'로 가볍게 포문을 연 현악 사중주단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캐논' '사계 중 겨울'을 비롯해 대중가요, 동요 '섬

집아기' 크리스마스 캐럴 '징글벨'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보이며 듣는 즐거움을 더했다. 소프라노 최우영은 오페라 〈파우스트〉의 '보석의 노래'로 좌중을 압도하며 등장, 이탈리아 오페라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우리나라 가곡 '아름다운 나라'를 열창했다.

한편 이날 음악회에서는 임직원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연주된 음악들과 관련된 퀴즈를 출제하고 정답을 맞힌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증정한 것. 기대하지 않았던 깜짝 이벤트에 정답을 맞힌 사람, 축하를 해주는 사람 모두에게 기분 좋은 깜짝 선물이 되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 저녁, 아름다운 음악으로 힐링한 넥센타이어 임직원들은 따뜻하고 풍성해진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포승점

한 차원 높은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다

벌써 5번째 오픈이다. 이현식 점장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하다. 넥센타이어의 품질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오랜 노하우에서 비롯된 자신감이다. 평택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고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다.

STATION 1

고객을 배려한 세심한 배려

타이어테크 포승점은 새벽 5시 반에 오픈해 저녁 9시에 닫는다. 인근 평택국가산업단지를 오가는 고객들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포승공단 내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6시에 출근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그에 맞춰서 일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이 길기 때문에 4명의 직원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죠."

포승점은 작년 10월 1일에 오픈한 신규 대리점이지만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인기의 비결은 고객이 머무르는 공간을 채운 이현식 점장의 세심한 배려다. 대기실에 음료수 냉장고를 비치한 것은 물론 바쁜 일상에 끼니를 놓쳤을 지도 모르는 고객들을 위해 라면을 구비해 놓고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 있도록 안락한 리클라이너 소파까지 설치했다. 자동차 내부를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저는 타이어 대리점이 단지 타이어를 구매하고 교환하는 장소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다가 우연히 들른 분도 한 번 오셨다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현식 대표가 남다른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이유는 대리점을 다수 운영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정비사, 레이서 등 타이어 영역을 넘어서는 분야에서 쌓은 경험도 도움이 되었다.

정비사에서 타이어 대리점 점장이 되기까지

"자동차 정비사로 20년 이상 일해오면서 차량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쌓았고 자동차에서 타이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몸소 체험했죠. 10년 전 인근 정비소에서 일하며 주로 다루던 브랜드가 넥센타이어였는데, 그때부터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현식 점장은 2015년부터 같은 평택 지역 내 안중읍에 처음 타이어 대리점 겸 정비소를 오픈하고 정비 서비스도 함께 선보였다. 한 매장에서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객들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다. 타이어테크 포승점 역시 공기압 및 휠 밸런스 체크는 물론이고 엔진룸 세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브레이크 제동 장치에 문제가 있음에도 정비소에서 타이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방문한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정비소를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준 적도 있다. 여기에 레이서로서 많은 타이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얻은 데이터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타이어 대리점에서 왜 다른 부분까지 점검하냐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서비스를 받고 나면 크게 만족하시며 재방문을 약속하시죠. 제가 가진 노하우를 모두 동원해 서비스해 드리는 것이 우리 포승점만의 영업전략이자 최대 강점입니다."

타이어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열었다는 이현식 점장의 향후 계획은 고객 만족도를 100%까지 끌어올리는 대리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좋은 품질의 타이어를 제안하는 것은 기본이고 원활한 주행을 위한 전반적인 차량 컨디션 점검, 그리고 매장에서의 안락한 경험까지 전천후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오늘도 고객의 가려운 곳을 먼저 찾는데 여념이 없다.

포승점의 베테랑 노트

1 편하게 누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장시간 혹은 추운 날씨에 긴장하며 운전했을 고객들을 위해 대기공간에서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리클라이너 소파를 마련하는 등 고객 편의에 진심이다.

2 말하지 않아도 먼저 체크해 주는 자동차 컨디션

타이어 공기압 체크, 휠 밸런스는 기본!
차량 전체 점검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 번 등록한 고객은 차계부를 작성해 정기점검 등의 관련 정보를 문자 알림 서비스해 준다.

3 고객 편의에 맞춘 운영 시간

포승 단지의 특성상 일찍 출근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른 새벽도 마다하지 않고 문을 연다.
문을 닫는 시간 역시 오후 9시로 다른 대리점에 비해 여유 있게 방문할 수 있다.

TIRE TECH VETERAN NOTE

▲
타이어테크 포승점
지도 보러가기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서로 25
전화 031-686-7685

STATION

VOL 90

2023
NEW YEAR

2023년 유럽공장은 2차 증설과 함께 유럽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향해 한 단계 도약하려는 포부를 전한다.
창녕공장에서 진행된 포토부스 이벤트와
가족 DIY 이벤트에 많은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해
특별한 추억을 쌓고 연탄봉사, 고구마 나눔 등으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

넥센 in Global
포토제닉을 찾아라
우리 가족 DIY
NEXEN CSR

STATION

2

글. 고용운 팀장, 김동훈 대리 (유)인사총무팀, 정리. 편집실

STATION 2

넥센타이어 유럽공장이
올해 2차 증설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을 꿈꾸다

넥센타이어 유럽공장

Nexen Tire Europe Plant

방문객용 카트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유럽 전진기지

넥센타이어 유럽공장(Europe Plant)은 체코 프라하에서 북서쪽으로 60km 떨어진 자테츠(Zatec) 시 트라이앵글(Triangle) 산업단지에 자리하고 있다. 2014년 체코법인으로 최초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유럽법인(Nexen Tire Europe s.r.o.)으로 생산과 판매를 책임지며 유럽 전체 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 반경 40km 이내에 전 세계 완성차 메이커 30여 개가 위치해 있는 등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럽공장은 유럽시장 수요 증가에 대비한 생산 캐파 확보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전까지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 생산기지가 집중되어 있어 운송비 부담이 적지 않았으며 고객사 요청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2015년 유럽 매출 비중이 약 18%인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 시장 공략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 8백억 원을 투자해 122,742㎡ 규모의 1단계 공장을 준공 후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올해 완공을 목표로 2단계 공장(56,000㎡)을 건설 중이다. 현재 VW, Skoda, Seat, Fiat, Renault 등 유럽 주요 자동차 메이커와 현대기아자동차 유럽 현지 공장, 유럽 Replace Market Dealer 등이 주요 고객이다.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이 함께 나아가는 방법

유럽공장에는 EP지역총괄 BS장을 중심으로 (유)관리 BS, EP생산 BS, P.OE 혁신센터 및 생산기술 BS 소속의 EP IOP팀과 글로벌품질 BS 소속의 EP 품질팀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체코인 관리직과 기능직이 대다수를 이루며, 주재원 및 K.Staff으로 구성된 한국인을 비롯해 몽골,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인원들이 협업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을 중심으로 회사와 직원이 함께 동반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제도와 활동을 기획하며 Open Day, 채용 캠페인, Townhall meeting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Open Day(Family Day)를 진행해 공장 구성원들의 가족 600여 명을 공장으로 초청하고 견학하게 하는 행사를 가졌다. 유럽공장 설립 이후 직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첫 행사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 덕분에 공장을 정상 가동하면서도 생산차질 없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방문 가족들은 공장의 첨단 생산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넥센타이어 가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직원들은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

고등학교 방문

패밀리데이

Nexen Tire Europe Plant

가 되었다. 단순히 인원 규모에서만 최대가 아닌 첨단 설비/자동화 공정을 갖춘 선진기업의 이미지 구축에 힘쓰고 있다.

체코만의 고유문화도 함께 즐기고 있다. Name Day는 각자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념일로, 각 직원들의 Name Day마다 작은 선물과 인사를 전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 또 부활절에는 소년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 리본으로 장식해 만든 채찍(pomlazky)으로 마을 소녀들을 채찍질하면 소녀들이 소년들에게 찬물을 뿌리며 질병과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던 풍습을 따라 회사에서도 종종 친한 동료 사이에 때리는 척하고 다니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자테츠 맥주 축제, 기술학교 산학협력, 재해재난 기부 등 각종 지역 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현지에서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창립기념일 행사

유럽공장에서 보내온 편지

To. 글로벌 넥센타이어 가족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서로의 안부 를 편히 묻거나 왕래를 제대로 못했지만, 글로벌 넥센인들이 각 나라 ,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과 성의를 갖고 일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분들의 노력이 모여 유럽공장 2차 증설이 가능하였기에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유럽공장의 소식을 전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유럽공장 또한 정주하지 않고 항상 넥센 타이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분의 역할을 다하고 글로벌 넥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rom. 넥센타이어 유럽공장

CZECH REPUBLIC

생산시설 고도화와 친환경을 위한 노력

현재 유럽공장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2차 증설이다. 2차 증설이 완료되면 생산 캐파가 연 550만 개에서 1,100만 개로 확대된다.

이에 유럽공장은 1단계 공장 생산의 극대화, 2단계 공장 Ramp Up 달성을 2023년 목표로 수립했다.

2019년 4월부터 일 1,000개 이상 생산 이래 현재 일 15,600개 생산이 가능한 체제가 되었다.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설비 고장 및 수리시간 감소 활동을 통해 생산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다.

2단계 공장 Ramp Up은 준공승인이 완료된 후 2023년 10월부터 진행하여 2024년 9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2단계 공장 인원의 조기 채용 및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1단계 공장의 숙련된 인원을 2단계 공장에 배치하는 등 1단계 경험을 토대로 조기 안정화를 위해 애쓸 예정이다.

여기에 프리미엄 OE 타이어 공급 확대를 위해 초도품 품질관리 강화와 Foam Line, SWI 추가 설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 바이오 모니터링을 통해 공장 주변 지역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폐수 Retention tank 운영, CF RTO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Cold Plasma(배출가스 악취저감) 시설 적용 등 자연 친화적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포부다. 유럽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향한 전진기지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숫자로 알아보는

Czech Republic

체코의 이모저모

국내총생산(GDP)

2021년 기준 체코의 GDP는 약 2,823억 달러로 세계 46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의 산업 강국 중 하나다.

2,823.4억 달러

(2021년 기준)

총인구

체코 인구는 약 1,049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약 1/5 수준으로 전 세계 국가 중 87위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국가로 스웨덴, 온두라스, 그리스 등이 있다.

1,049만 3,986명

과학과 기술의 나라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타트라(Tatra)가 체코에서 탄생했다.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이 800여 개에 이르며 16만 명 이상이 자동차 산업 종사자로 일하고 있다. 한국 기업 중에는 넥센타이어 공장과 현대모비스 램프 공장이 진출해 있다. 콘택트렌즈와 아이폰 지문 스캐너가 체코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고,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전자현미경의 3대 중 1대가 체코에서 생산되고 있다. 은, 석탄, 리튬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전통 제조업과 자동차, 전자·전기 분야가 발달했고 의료, 항공 분야의 R&D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흡의 도시, 자테츠

넥센타이어 유럽공장이 위치한 자테츠는 옛 왕실 도시이자 세계 5대 명품 홉의 생산지이다. 전 세계 라거와 필스너 우스켈의 핵심 원료가 되는 사츠(Saaz) 홉을 생산하며 매년 9월에 맥주축제가 열린다. 700년 이상 홉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도시 곳곳에 홉 가공 건물들이 잘 보존돼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보에 올라가 있다.

800개

78만 7,101ha

총면적

체코는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을 이웃하고 있으며 국토 면적은 788만 7,101ha로 전 세계 118위에 해당한다.

700년 이상

HELLO NEXEN

2023년에는 토끼처럼 깡충 뛰어오르세요!

2022년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을 남긴 12월의 창녕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과 새해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뒤섞여 있었다. 지금의 감정을 오롯이 기록하고 2023년을 더욱 특별하게 맞이하기 위한 인생 네 컷 포토부스가 설치됐다. 쭈뼛거림도 잠시, 끊임없이 프레임을 가득 채운 미소들을 공개한다.

STATION 2

네 컷에 담는 오늘의 추억, 내일의 소망

"지금부터 총 4컷을 찍습니다. 어떤 포즈를 할 지 고민해주세요." 그 시절 스티커 사진을 떠올리며 포즈를 연출하는 넥센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처음 찍어보는 탓에 타이밍을 놓쳐 어설픈 포즈로 마무리되는 것마저도 이들에겐 웃음 포인트다. 덕분에 추워진 날씨로 움츠러들었던 어깨도 펴고 마음속 여유를 되찾았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창녕공장 넥센인들이 가장 많은 소망하는 것은 역시 건강. 지난 몇 년간 사람들을 괴롭혔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답변이 많았다. 또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을 거듭 강조하는 이도 있었으며, 경기가 빨리 회복되어 2023년에는 더 많이 웃길 바란다는 이도 있었다. 창녕공장 넥센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2023년 토끼의 해에는 깡충 뛰어올라 모든 넥센인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도약하길 헬로우 넥센도 함께 소망한다.

2023 NEW YEAR

Q 2023년 넥센인들에게 한 마디

CP품질팀

넥센인들은 물론 우리 넥센인들의 가족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신입사원 동기

모두 건강하고,
원하는 걸 모두 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P인사지원팀

다같이 한마음이 되어
힘든 시기를
극복하길 바랍니다.
긍정의 힘을 가져보아요!

(CP)품질검사팀

2022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활기차게 맞이해봐요.
Welcome 2023 New Year~

CP생산기술팀

우리 팀원분들
모두 건강한
2023년을
기원합니다.

(CP)금형파트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우리 모두 다치지 않고 파이팅!

(CP)재료파트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고 싶은 일
모두 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 잘 합시다!

(CP)원동파트

2023년도 안전 사고 없이 파이팅~!
행복의 시작은 안전입니다.

CPMES파트

넥센타이어가 승승장구해서 임직원들이
다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CP)성형파트

모든 넥센인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1등 타이어가
됐으면 합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P)압출파트

2023년에는 대한민국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STATION 2

청바지가
아기자기한 시계로 변신!

작년 컬러링에 이어 새로운 가족 참여 코너가 넥센인들의 가정을 방문했다.
올해의 주제는 바로 친환경 DIY. 첫 번째 DIY 아이템은 청바지 조각과 택배 상자, 레고를 업사이클링한 시계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까르르 들리는 것 같은 가족의 화기애애한 시간을 공개한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중공업이나 화학, 제조업 등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패션 산업 역시 만만치 않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전체 산업 가운데 오염물질을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한다. 섬유 가공, 염색, 표백 과정에서 사용된 물은 지하수와 하천, 바다를 오염시킨다. 또 물류 이동, 의류 폐기물 소각&매립 등으로 해마다 120억 톤에 달하는 탄소도 배출한다. 여기에 패스트패션의 등장은 옷이 쓰레기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단축시켰다. 전 세계에서 1년에 약 1,000억 벌의 옷이 만들어지고 그중에서 330억 벌이 버려진다.

이처럼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며 옷을 덜 사고 오래 입는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고민이 확산되고 있다. 버려지는 옷들의 절반 정도의 양을 1년만 더 입어도 탄소 배출과 물 소비량을 각각 10% 이상 줄일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오래된 의류를 업사이클링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 시계 만들어요"

김한수 책임 글로벌영업기획팀

날씨가 추워 외출하기는 싫고 집에서 무료하던 차에 아들과 함께 열심히 설명서를 읽고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레고를 이용해서 만든다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더군요. 지구 환경을 위해 쓰레기로 버릴 물건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거라고 하니 더욱 뿌듯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레고 재료가 맘에 들지 않았는지 아들이 갖고 있는 레고 캐릭터 몇 개를 갖고 나와 그중 하나를 골라서 12시에 붙여주니 더 근사한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완성된 작품이 마음에 들었는지 어느새 아들 방 책상에 올려 두었답니다. ㅎㅎㅎ

"업사이클링이 뭔지 알았어요"

김기현 수석연구원 특성연구팀

이번 시계 만들기 DIY를 통해 아들에게 업사이클링이 뭔지 처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려워서 제대로 발음하지는 못하지만 개념에 대해 조금은 알아들은 덕분에 환경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시침과 분침이 돌아가는 것도 보고 남는 레고도 꾸미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레고 마니아가 빠질 수 없죠!"

유재훈 책임 문화혁신팀

사보 콘텐츠로 청바지와 레고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시계를 만들기를 진행한다고 해서 부리나케 오픈런 신청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레고라는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좋아하는 레고 마니아라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덕분에 회사로 키트를 받아 점심시간에 짬내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자칭 똥손(?)이라 생각처럼 잘 만들진 못했지만 정성과 마음이 중요한 거겠죠? ^^ 청바지와 택배 박스 업사이클링이라는 점이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더해 더욱 멋진 작품으로”

한은수 팀장 CP품질검사팀

시계 만들기는 평소 생각해 보지 못한 아이템이라, 아이들에게 시계를 만든다고 하니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상자를 열었는데, 작은 레고 블록이 딱! 레고 좋아하는 아들은 바로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레고까지 꺼내 와서 어찌나 정성껏 만드는지^^ 아빠의 기본 디자인에 아이들의 정성을 듬뿍 더해 시계를 완성했어요.

다 만들고 나서 방에 걸어 두니 매일매일 보면서 성취감을 더 느낄 수 있어 완전히 만족스럽네요~ 가족이 함께 하며 서로의 취향도 잘 알게 되고 한 결 더 친근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의류 업사이클링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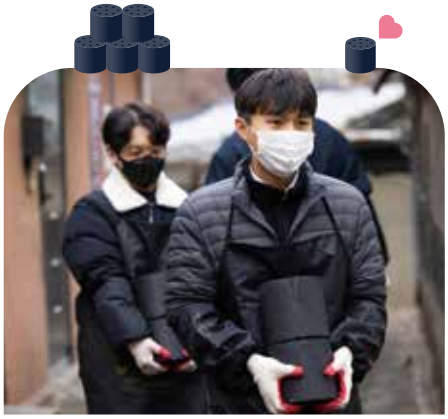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단체체험

6세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업사이클 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10인 이상 단체부터 신청 가능하며 버려지는 양말목으로 텀블러 물병 가방 만들기, 호텔 침구 원단을 재활용하여 에코백 만들기, 청바지로 파우치와 코스터, 반려견 스카프빕 만들기 등의 체험을 운영한다. 또 입지 않는 청바지를 기부할 수도 있다. **문의** https://www.gm.go.kr

글. 편집실, 사진. 임근재

연탄은 사랑을 싣고~

사랑의 연탄 나눔



넥센타이어가 지난 12월 7일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해 후원한 연탄을 임직원들이 서울 동작동 일대의 여러 가구를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

오후 2시, 연탄 나눔 봉사에 지원한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눈 또는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무색하게 영상 10도의 온화한 날씨 아래 가볍게 몸을 푼 임직원들은 본격적으로 연탄을 나르기 시작했다.

폭 2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골목길을 20번 가까이 왕복하고 나서야 첫 번째 가구 전달이 완료됐다. "연탄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평소 운동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따뜻한 겨울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글로벌영업기획팀 장윤정 사원은 빠르게 땀을 훔치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약 3.6kg, 두 장이면 7kg가 넘는다. 한 시간 넘게 들고 나르다 보니 체력이 부치는 건 한국OE개발팀 김연조 사원도 마찬가지다. "생각보다 힘들지만 동료들과 함께하니 뿌듯함이 더 큽니다. 입사 후 처음 참여하는 CSR 활동인데 앞으로 종종 함께하겠습니다"라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짧은 휴식 한 번을 제외하고 2시간을 열심히 연탄을 나른 결과 드디어 5가구 전달이 완료됐다. 인사팀 오동진 책임은 "2022년 힘든 한 해였는데,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오늘 봉사에 선뜻 나서준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특성연구팀 이충현 연구원 역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힘든 작업이었는데 다 함께 힘을 합쳐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뿌듯합니다"라며 다음에 또 참여하겠다는 포부를 남겼다.

혹독한 겨울나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넥센타이어 임직원들이 행한 연탄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란다.

대한적십자사 헌혈사업 유공 표창 수상

넥센타이어가 헌혈문화 확산과 혈액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지난 10월 '혈액 사업 유공 표창'을 받았다.

혈액사업유공 표창은 대한적십자사가 헌혈문화 확산과 헌혈증진을 통한 혈액공급 및 관리에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등 혈액사업에 공헌한 개인 및 우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넥센타이어는 양산 공장, 창녕 공장, 중앙연구소 등 각 사업장에서 단체헌혈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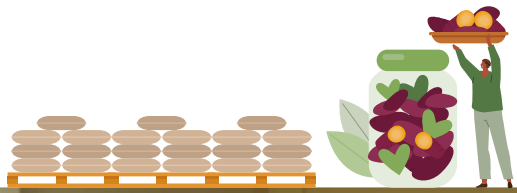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헌혈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취약 계층에 농산물 기부하며 이웃 사랑 실천

넥센타이어가 지난 11월 취약 계층에 쌀과 고구마를 기부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넥센타이어는 쌀 5kg 400포대와 고구마 10kg 400박스를 양산시 복지 재단에 기부했다. 농산물은 양산 지역의 사회복지관 5곳에 배분돼 취약계층 400가구에 전달됐다.

넥센타이어는 다가오는 겨울을 지역 주민들이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쌀과 고구마 나눔 행사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매년 고구마, 쌀, 김치 등을 통한 따뜻한 나눔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STATION

VOL 90

2023
NEW YEAR

2023년을 맞아 아름다운 이야기와
멋진 영감으로 일상을 채워가는 방법을 소개한다.
도서, 공연 소식과 함께 캠핑족들을 위한 핫템과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 처치법을 안내한다.
또 모빌리티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TaaS에 알아본다.

컬처 가이드
미래참견시점
핫템 모아보기
365 건강백서
NEWS
함께해요!

STATION

3

글. 편집실

"새해엔 OO할 거야!"

STATION 3

2023년엔 더 많이 읽고, 보고, 느껴요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또 한 살 먹는구나" 하는 자책은 접어두자. 새해부턴 '만 나이 통일'로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니 조급함은 버려도 된다. 대신에 하루하루 우리 앞을 찾아온 것들을 충분히 즐기고 누려보자. 조급함과 불안이 사라진 자리는 아름다운 이야기, 멋진 영감으로 채워 보자.

BOOK

이토록 평범한 미래

김연수 문학동네 2022

☀

소설가 김연수의 신작 소설집. 단편집으로는 2013년 『사월의 미, 칠월의 솔』 이후 9년 만에 출간됐다. 안팎으로 변화를 추동하는 일들이 계속되던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쓰여진 소설들엔 무한하게 이어지는 시간 속 이를 인식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지구 종말이 올 것이란 예언으로 떠들썩했던 1999년 동반자살을 하려던 남녀가 시간여행을 다룬 소설을 만나는 이야기인 표제작 「이토록 평범한 미래」부터, 보다 긴 차원에서 시간을 감각하고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다시, 2100년의 바르바르에게」까지. 이야기를 전하는 일, 미래를 상상하는 일,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일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새해에 기대감보다 두려움과 막막함이 앞선다면 꼭 읽어보자. 담담한 위로가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노력하기로 했지.
이 삶에 감사하기로.
타인에게 더 다정하기로.
어둠과 빛이 있으면 빛을 선택하기로.

식물분류학자 허태임의 나의 초록목록

허태임 김영사 2022

☀

식물분류학자 허태임의 에세이. 자신을 '초록(草錄) 노동자' 내지 '식물덕후'라 말하는 그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이 땅의 사라져가는 식물을 지키기 위한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1년 중 절반 이상은 전국의 산과 들을 누비며 식물을 찾아가 관찰하고,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사람의 언어로 옮겨 적는다. 오지 마을의 할머니들에게 산나물의 지혜를 얻고, 군사보호시설이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찾아가는 것은 물론, 무인도의 암벽과 고목을 오르기도 한다.

책을 읽으면 그가 보는 시선으로 평범한 우리 주변의 나무와 자연을 볼 수 있게 된다.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의 눈으로, 탐구하는 과학자의 눈으로, 사랑으로 돌보는 이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게 한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초록이 그리울 때 펼쳐보자.

나는 식물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공부는 식물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옮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밥 챙겨 먹어요, 행복하세요

마포농수산센타 세미콜론 2022

☀

유난히 힘들었던 하루, '저녁은 제대로 챙겨 먹어보자'고 다짐하지만 쉽지 않다. 오늘도 배달 앱을 켜거나 라면 물을 올리고 말았다면? 이름부터 구수한 '마포농수산센타'가 트위터에 소개해온 레시피 북을 참고해보자. 먹방 유튜브와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순두부 열라면'의 창시자로 알려진 저자 특유의 말투로 쓰여진 다정한 레시피들이 '레트로' 콘셉트를 입고 책으로 엮였다.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재료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메뉴와 비법들, '휘리릭 땡' 만드는 술안주 레시피가 꽤 화려하다. 뭐부터 해야할지 막막한 '요리알못'에게도, 저녁 반주를 즐기는 술꾼들에게도 요긴한 레시피가 가득이다.

밥 챙겨 먹어요..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할게요..

EXHIBITION & PERFORMANCE

브로드웨이 42번가

창원 성산아트홀 2월 17일 ~ 19일까지

☀

스테디셀러의 대명사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가 18번째 시즌으로 찾아왔다. 뮤지컬 댄서가 되기 위해 시골에서 상경해 코러스 일을 하던 페기 소여가 우연히 주인공 역할을 맡으며 스타가 될 기회를 마주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브로드 웨이 최고의 연출가 줄리안 마쉬에 송일국, 이종혁이, 한물 간 뮤지컬 배우 도로시 브록에 정영주, 배해선, 신영숙이 역을 맡았다. 페기 소여는 오소연과 유낙원이 이름을 올렸다.

주연 배우들뿐만 아니라 무대를 가득 채우는 앙상블 배우 한 명 한 명이 돋보이는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는 20여 명의 앙상블이 함께하는 탭댄스 군무. 화려한 금빛 의상을 입고 선보이는 화려한 군무가 1930년대 뉴욕 브로드웨이를 무대 위로 소환한다.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3월 19일까지

☀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의 꽃이라 일컫는 '외규장각 의궤'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 의궤는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의 중요한 행사가 끝난 후 그 전 과정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은 기록물이다. 그중에 왕이 읽어볼 수 있도록 정성껏 만든 어람용 의궤가 있는데, 이는 왕이 열람한 후 강화도 외규장각에 모아 보관한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약탈됐던 외규장각 의궤는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중국책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1978년 박병선 박사에 의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고, 2011년 5월 297권이 14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바 있다. 귀환 10주년을 기념하며 의궤 전체와 의궤에서 보이는 서책, 회화, 공예품, 복식 등 다양한 왕실의 보물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

MOVIE & OTT

아바타: 물의 길

22년 12월 14일 극장 개봉

☀

2009년 개봉해 3D 영화의 신기원을 열었던 아바타의 후속편. 판도라 행성에서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가 이룬 가족이 겪게 되는 위협과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하는 긴 여정과 전투, 그리고 견뎌내야 할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다. 역대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한 전편에 이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3년만에 선보이는 영화로, 샘 워싱턴, 조 샐다나, 시고니 위버, 그리고 〈타이타닉〉 이후 감독과 처음으로 재회한 케이트 윈슬렛이 출연한다.

이번 〈아바타: 물의 길〉은 다채로운 해양 생물들과 호흡하고 물속에서 적응한 나비족의 모습을 아름다운 시각적 효과로 그려냈다. 고래와 닮은 초거대생물체의 비주얼이 주는 압도감도 회자된다. 러닝타임은 무려 3시간 12분. 감독이 인터뷰에서 "같은 돈을 내고 더 길게 보면 좋은 거 아닌가"라며 자신감을 보였다니 기대감을 갖고 극장으로 향해도 될 것 같다.

NETFLIX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

22년 12월 23일 넷플릭스 공개

☀

영화 〈나이브스 아웃(Knives Out)〉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85세 생일에 숨진 채 발견되고, 그의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경찰과 함께 탐정 브누아 블랑이 파견되면서 펼쳐지는 미스터리 작품으로, 2019년 공개 당시 다니엘 크레이그, 크리스 에반스, 토니 콜렛, 마이클 섀넌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주목받았던 작품이다.

속편 격인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은 억만장자의 '살인 사건 게임'이 예고된 그리스 외딴섬에 초대되지 않은 뜻밖의 손님 브누아 블랑(다니엘 크레이그)이 나타나 진짜 벌어진 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리한다. 꼭 1편을 먼저 봐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함께 즐기는 것도 좋겠다.

글. 정구민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모빌리티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TaaS

STATION 3

서비스형 교통으로 불리는 TaaS(Tansportation as a Service)는 도시 전체의 교통을 이동 서비스로 제공하는 개념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만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거나, MaaS를 넘어서 도시 교통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운전에서 이동으로의 변화, 서비스의 활성화는 모두를 위한 이동, 운전 약자를 위한 이동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모두를 위한 이동'과 '완전자율주행차의 공유'를 향해서 TaaS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의 발전

2010년대에 시작된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는 서비스-전기차-자율주행을 세 축으로 하고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의 발전은 스마트폰의 발전과 맞물려 있다. 사용자와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위치로 가까운 차량을 이동시키게 되면서, 모빌리티 서비스가 크게 발전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이 더해지며 TaaS의 발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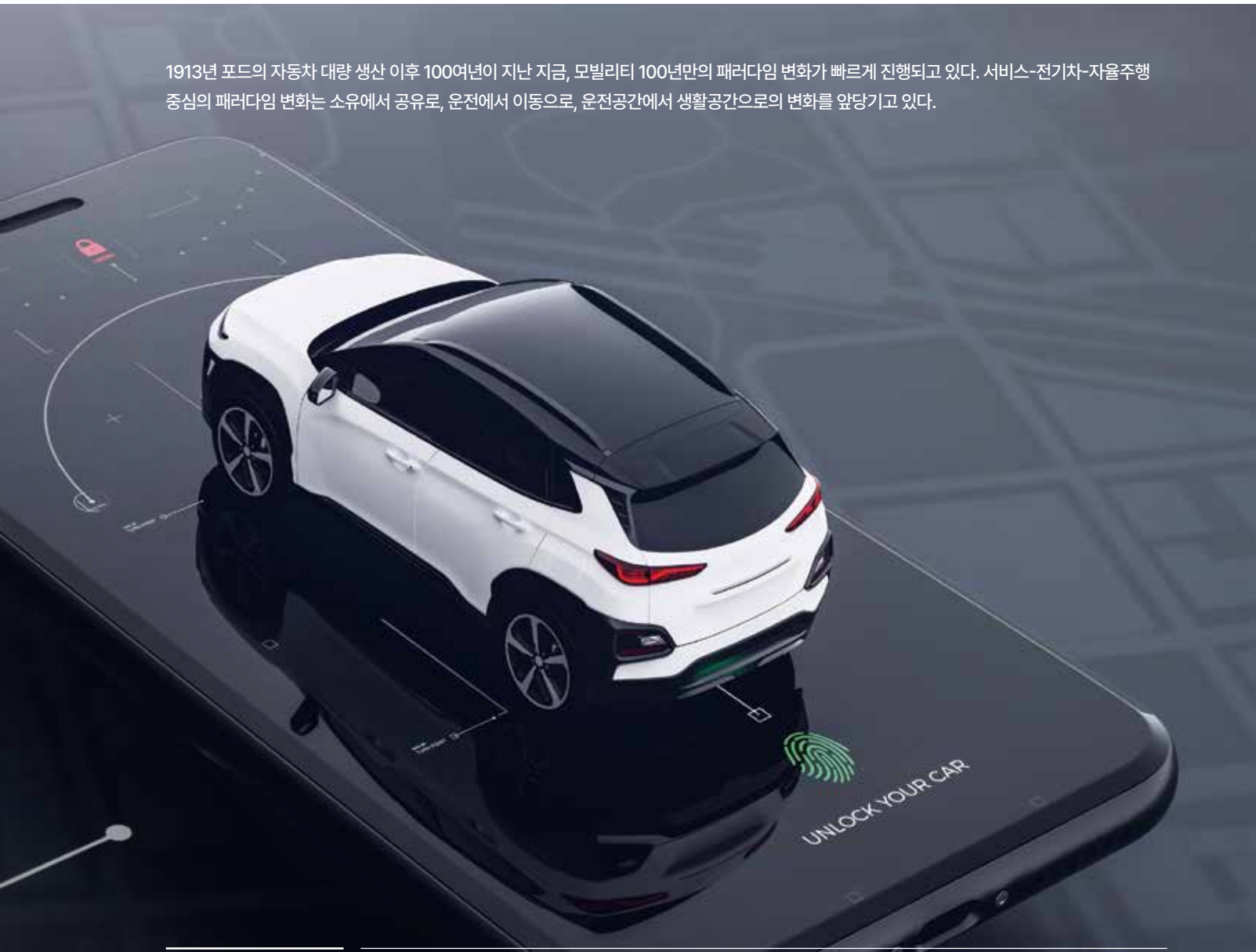
주요 모빌리티 서비스인 카풀, 택시호출, 차량공유, 승차공유 중에서 특히 승차공유는 소유에서 공유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미국 우버, 리프트, 동남아 그랩, 중국 디디추싱 등 여러 업체들이 관련 시장에서 크게 성장했다. 12월 9일 현재 우버의 시가 총액은 529.52억 달러(약 69조 원)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합친 약 61조 원보다 높은 상황이다.

우버는 지난 2015년 주문형교통서비스(On-demand transportation)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완전자율주행차를 공유하게 되면, 기존 대중교통이 사라지고 교통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자율주행의 도입으로 주차가 필요 없어지면서 차량 대수가 크게 줄어들고 사용자의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곧이어 벤츠도 주문형 교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과 차량 공유 서비스의 발전을 언급하기도 했다. 벤츠는 자사의 모빌리티 서비스인 카투고(차량공유), 마이택시(택시 호출), 무블(이동수단 추천 및 결제)을 성장시켜 나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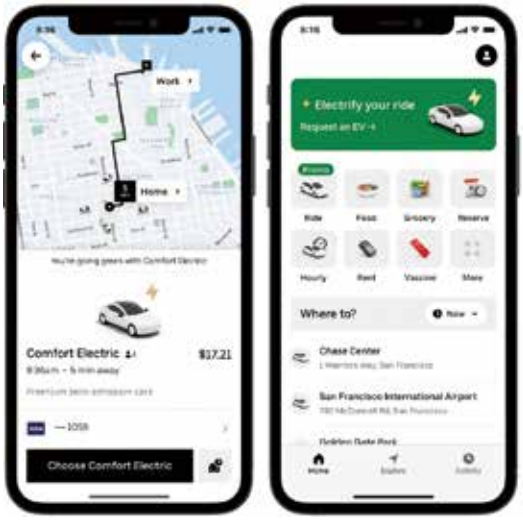
이러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코로나19에 접어들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주요 자동차사들의 차량 공유 서비스가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으며, 승차공유 업체들도 승객 이동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승차공유 업체들은 승객 이동 서비스 대신 배송 서비스를 강화시키면서 손해를 일부 만회하기도 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끝나가면서, 배송 이 감소하고 이동이 증가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다만, 인건비 상승, 물가 인상, 운전자 부족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의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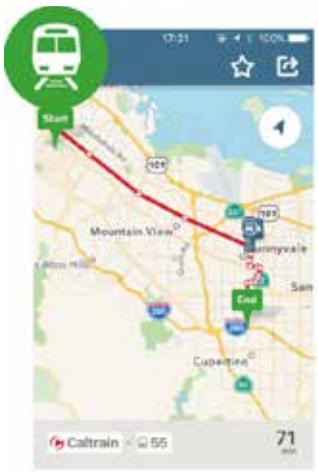
1913년 포드의 자동차 대량 생산 이후 100여년이 지난 지금, 모빌리티 100년만의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전기차-자율주행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는 소유에서 공유로, 운전에서 이동으로, 운전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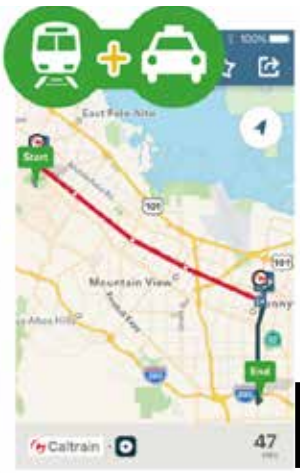
자율주행차의 공유 및 주문형 교통 서비스를 향한 진화



복합교통서비스 및
전기차 호출 서비스 사례
©시티매퍼, 우버



Transit Only



Transit + Car

Mobility as a Service

사용자의 수요와 도시 구조에 맞춰 진화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카풀, 차량공유, 승차공유 등 초기 모빌리티 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사용자 수요의 빠른 변화와 함께 도시 구조의 변화도 고려한 모빌리티 서비스 진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복합교통서비스, 제한적 차량 공유 서비스, 고성능 전기차 승차 호출 서비스, 반려 동물 이동 서비스 등에서 변해가는 모빌리티 서비스 트렌드를 읽어 볼 수 있다.

복합교통서비스는 여러 교통수단을 조합하여 최단 시간 이동이나 최적 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하철에서 사용자가 내리면 미리 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택시나 승차공유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고성능 전기차 승차 호출 서비스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넓은 공간을 제공하면서, 조용하고, 편리한 고성능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최근 고성능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2022년 우버는 '우버 컴포트 일렉트릭'을 선보였으며, 제공 도시를 늘리고 있다.

제한적 차량 공유 서비스는 지인이나 같은 회사 등 제한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차량 공유 서비스이다. 기업이나 아파트 등 일정 건물 사용자를 중심으로 할 경우 주차장을 활용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빌딩의 주차장과 연계한 공유 서비스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이동을 위한 반려동물 전용 이동 서비스도 성장하고 있다. 일반 사용자와 공유하기에는 다소 힘들 수 있는 반려동물 이동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제한적 차량 공유 서비스와 반려 동물 이동 서비스 사례 ©카플랫, 멍타냥

Ride-Pooling

자율주행 셔틀의 공유를 향한 라이드풀링 서비스의 진화

도시화와 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서비스 변화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라이드 풀링(Ride-Pooling) 서비스는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합승하여 셔틀 형태로 운영하는 서비스이다. 기존 우버 모델을 소형 밴이나 소형 셔틀로 확장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기존 대중교통은 출퇴근을 위해서 설계되고, 정해진 길만 다니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서비스가 새롭게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 5만명의 소도시인 미국 윌슨시는 2020년 9월 기존 버스 노선을 소형 밴을 공유하는 라이드 풀링 서비스로 대체했다. 기존에는 5개의 버스 노선을 1시간당 1대 운영했으나, 출발지와 목적지가 자유로운 소형 밴 기반의 라이드 풀링 서비스로 대체했다. 윌슨 시는 1.5달러를 지불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1주당 3700회를 운행하여 기존 버스 1400회 운행보다 운행 횟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예산이 13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로 늘어나서, 운행 요금을 2.5달러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셔클 서비스를 통해서 일정 반경 내에서 이동하는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라이드 풀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출퇴근에 맞춰진 기존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서비스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자율주행을 도입하여 미래형 교통 서비스를 시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100원 택시도 이동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다. 100원 택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버스 운행이 어려운 시골지역에서 지자체가 이동 비용을 지원해주는 개념이다. 100원 택시 운영 이후로 이동 횟수가 2배 늘었다는 보고도 나왔으며, 시골지역의 이동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윌슨 시의 사례나 100원 택시의 사례에서는 이동 지원을 위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도 살펴볼 수 있다.

윌슨 시티의 공유 서비스 ©윌슨시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 기술을 통한 차량 배차, 현대의 셔클 서비스 ©현대

완전자율주행차의 공유를 향한 TaaS의 진화

아직 완전자율주행차의 진화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정 지역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은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다. 특히 2025~2027년경에는 자동차사의 자율주행 플랫폼이 안정화되면서 도심 자율주행 기술이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TaaS의 진화는 '모두를 위한 이동'과 '편리한 이동'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의 변화, 서비스 산업의 발전, 모두의 이동을 위한 예산 투입, 자율주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 등 여러 측면에서의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밀집도가 높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외로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었다. 과거엔 여럿이서 모닥불 앞에 모여 왁자지껄했지만 요즘은 조용히 불멍하며 휴식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싶은 캠핑족의 마음을 저격한 핫템을 소개한다.

캠핑은 장비빨!

캠핑족 장바구니 속 핫템

제드코리아 제드기네크림

텐트 전체 개방이 가능해 통풍이 잘 되고 개방감이 있다. 특히 텐트 천정에는 메쉬로 구성된 대형 루프창을 장착하여 결로를 최소화하고 환기를 시키며 밤에는 별을 보기에도 좋다.
©제드코리아

넷이 왔어요~
가족 텐트
VS
혼자 왔어요~
차박 텐트

'캠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용품은 텐트다. 요즘은 캠핑을 떠나더라도 넓고 편안한 공간에서 여유로운 즐기는 모습이다. 거실과 룸이 붙어 있는 투룸형 텐트는 내부 공간이 넓으며 천장도 높아 서서도 편하게 활동할 수 있다. 겨울철 야외활동이 어렵거나 여름철 비가 내릴 때에도 조리와 식사, 간단한 레저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라 4인 가족에게 인기있다.

부쩍 늘어난 캠핑족만큼 캠핑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소한의 장비로 부담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차박이 인기다. 차박이란 자동차에서 잠을 자며 캠핑을 하는 것인데, 비좁은 공간을 넓히고자 트렁크에 연결해 사용하는 도킹 텐트가 차박족 사이에서 뜨고 있다.

스노우라인 새턴카쉘터

다양한 차종에 설치가 가능한 터널형 쉘터로 3면 대형 도어 개방이 가능해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중간 가림막이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와 차량과 공간 분리가 가능하다. ©스노우라인

피코크 고수의 맛집

담백한 국물에 소시지, 다진 소고기, 김치, 비법 양념장이 더해진 원조 오뎅식당의 시그니처 메뉴를 구현한 밀키트로 레시피 카드가 함께 동봉돼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신세계

프레시지 흑돈가 캠핑세트

고소한 육즙이 일품인 제주산 백돈 삼겹살과 쫄깃한 가리비, 탱글한 새우, 그린홍합을 함께 담았다. 흑돈가의 시그니처인 멜젓을 비롯한 다양한 소스 구성이 특징이다. ©프레시지

먹핑(먹고 마시는 캠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캠핑과 먹거리는 뗄레야 뗄 수 없다. 캠핑족들 사이에서 핫한 실리만의 '캠핑 트래블러 에디션'을 소개한다. 야외에서 더 간편하게 휴대성을 살린 것은 물론이고 스타일리시함까지 더해 감성 캠핑을 추구하는 2030에게 인기다. 요리 스푼, 알뜰 주걱, 수저 2개 세트가 포함된 파우치를 비롯해 실리콘 소재의 요리 접시와 컵, 도마, 재사용이 가능한 푸드 주머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캠핑장에서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이고, 휴대성과 편리성을 높인 캠핑 '효자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밀키트로, 요식업계에서는 캠핑에서 즐길 수 있는 밀키트도 출시하고 있다. 먹거리 준비 과정을 최소화하고 캠핑의 분위기만을 오롯이 즐기고 싶어하는 캠핑족들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이만 쉴게요
밀키트
VS
오늘은 내가 요리사!
감성 캠핑 조리 도구

실리만
캠핑 트래블러 에디션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성분이 없어 믿고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0°C~250°C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서 끓는 물에서도 변형이 없고 안전하며 위생적이다. ©실리만

오로라 가루
장작불에 뿌리는 '오로라 가루'. 장작불에 뿌리면 불꽃을 초록·파란색 등으로 변하게 만들어 오로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캠핑장에서는 '불멍(모닥불을 피워 놓고 멍하니 불을 쳐다보기)'이 캠핑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필수 코스가 됐다. 멍 때리기는 생각과 고민을 비우고 뇌를 쉬게 해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캠핑족들은 불멍에서도 개인취향을 가득 담은 아이템을 활용해 본인만의 '감성'을 드러낸다.

MBTI F형 감성템
오로라 가루
VS
MBTI T형 실속템
LED 랜턴

모닥불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아 친환경적이고 텐트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LED 랜턴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붉은색으로 눈에 띄던 예전 랜턴과 달리 요즘은 감성적인 다지인도 많이 나와 인기있다. 특히 빛과 사운드를 이어주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내장된 랜턴은 실용성이 탁월해 후기가 좋다.

인사이디 SUNRISE LED 랜턴 스피커로
나만의 공간에 감성과 낭만을 더할 수 있는 LED 랜턴. C타입 USB로 충전이 간편하고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다.
©인사이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로 골든타임을 잡아라!

통계청에 따르면 각종 안전사고가 사망 원인 중 3위를 차지한다. 안전사고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다. 사고 현장 목격자는 119 구급대와 환자를 신속히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목격자의 즉각적인 처치로 환자의 예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STATION 3

First aid Golden

time

응급상황 시 올바른 대처 요령은?

스스로가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섣부른 행동은 하지 않는다. 추가 사고 발생이나 환자 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현장 상황과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119에 연락한다. 특히 기도 폐쇄, 근육 경련, 심장마비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119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여 구조요청시기를 놓칠 수 있다. 구조요청 시 현장의 위치, 사고 발생 경위, 환자의 상태 및 수, 주위의 위험요소를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대부분의 응급처치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실시했을 경우에 효과가 크다. 스스로의 능력에 맞게 처치를 시행하되,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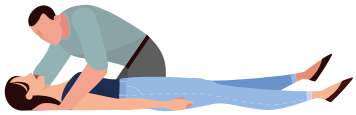
CPR

심폐소생술로 응급환자를 구해요

심폐소생술(CPR)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다.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어려우며, 예측되지 않은 심정지의 60~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다. 이에 첫 목격자는 가족, 동료, 행인 등 주로 일반인이다. 심정지 발생 후 4~5분이 경과되면 뇌가 비가역적 손상을 받기 때문에 심정지를 목격한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만 정상 상태로 소생시킬 수 있다.

① 반응 확인하기

환자의 양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말을 걸어보며 의식을 확인한다. 반응과 호흡이 있다면 심정지가 아니다.



② 119 신고하기

주변 사람들 중 한 명을 분명히 지목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119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요청한다.

③ 가슴압박 실시하기

환자의 가슴뼈 아래쪽 중앙을 깍지 낀 두손으로 압박하는데, 이때 양팔은 쭉 편 상태에서 가슴과 수직이 돼야 한다. 압박 깊이는 5~6cm, 속도는 100~120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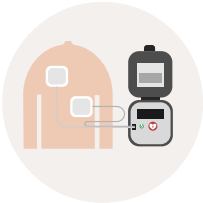
④ 인공호흡 실시하기

환자의 코를 막은 채 입을 밀착하여 숨을 불어넣는다. 약 1초에 걸쳐 2회 실시하며, 가슴압박과 함께 반복한다.

AED

찌릿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은?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는 심정지 환자에게 극히 짧은 순간에 강한 전기 충격을 가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회복시키는 기계다. 심전도에 나타나는 심장리듬을 분석하여 전기 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전기 충격은 2분씩 진행 후 자동으로 멈추므로,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반복하여 실시한다.



① 전원 켜기 및 패드 부착

제품에 따라 전원의 위치가 다르므로 버튼을 찾아 전원을 누른다. 패드는 총 2개로, 각각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에 부착한다. 패드와 자동심장충격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연결하고, 패드 부착 부위의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한 뒤 부착한다.

② 심전도 분석

'분석 중,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라는 음성 혹은 화면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잠시 중단한다. 심전도 분석을 마친 후 제세동이 필요할 경우 전기 에너지가 자동으로 충전된다.

③ 전기 충격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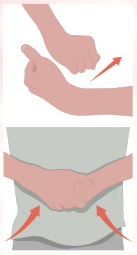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음성 혹은 화면 지시가 나오면,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전기 충격을 실시한다.

기도가 막히면 하임리히법으로 해결

기도폐쇄는 폐쇄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부분적으로 폐쇄될 경우 숨이 가쁘고 기침을 하며 피부가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전체적으로 폐쇄될 경우 말을 하지 못하고 기침을 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빠른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호흡 곤란부터 뇌 손상, 사망까지 이를 수 있고, 이물질이 폐로 들어갈 경우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기도폐쇄 환자가 발생했다면, 먼저 의식 유무를 확인 후 119에 신고한다. 의식이 없다면 즉시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나, 의식이 있다면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무엇보다 성인과 영아의 하임리히법은 다르게 실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 하임리히법

1/ 자발=적인 기침을 유도하되, 기침을 못할 경우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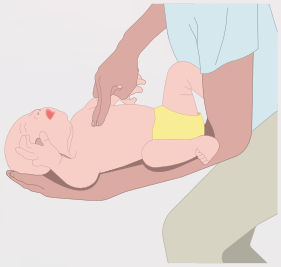
2/ 왼손을 주먹 쥔 후 환자의 등 뒤에 서서 배꼽과 명치 사이에 갖다 놓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싼다.

3/ 한쪽 다리는 환자의 다리 사이에 두고, 나머지 다리는 뒤로 뻗어 균형을 잡는다.

4/ 강한 힘으로 환자의 배 안쪽을 누르며 윗쪽으로 당겨준다.
5/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영아 하임리히법

1/ 각 손으로 영아의 턱과 가슴을 감싸면서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구조자의 허벅지 위에 엎드려 놓는다.
2/ 영아의 등 뒤 양쪽 날개뼈 가운데를 손바닥의 밑부분으로 5회 드린다.



3/ 각 손으로 영아의 턱과 뒤통수를 감싸 안아 올려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바로 눕힌다.
4/ 영아의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의 아래를 구조자의 두 손가락으로 5회 압박한다.
5/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tip

- 임산부나 비만이 심한 사람의 경우, 가슴 중앙에 주먹을 대고 윗방향으로 당기면서 압박한다.
-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 책상 모서리나 의자 등에 명치와 배꼽 사이를 대고 강하게 밀어 올린다.

HELLO NEXEN NEWS 1

고성능 프리미엄 차량용 '엔페라 슈프림 S' 신제품 출시

넥센타이어가 고성능 프리미엄 차량을 위한 플래그십 사계절 타이어 '엔페라 슈프림 S(N'FERA supreme S)'를 지난 11월 새롭게 출시했다.

신제품 '엔페라 슈프림 S'는 타이어 소음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넥센타이어의 NRS(Noise Reduction System) 기술이 적용된 흡음재를 부착해 주행 시 발생하는 공명음(소음)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저소음 트레드 패턴 형상 설계 및 실내 유입소음 저감 효과를 향상시켜 최고의 승차감을 제공한다. 사이드월에 'AI Technology' 표시도 마킹됐다.

또한, 사이프(타이어 표면의 미세한 홈) 및 그루브(타이어 표면의 굵은 세로 홈) 최적 설계를 통하여 타이어가 50% 마모되어도 초기 패턴 형상을 유지하며 최대한 성능을 발휘한다. 여기에, '엔페라 슈프림 S'는 기존 자사 제품 대비 강성 보완 및 트레드 폭 증대를 통해 도로와의 접지 면적을 넓히는 동시에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고성능·고하중 차량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타이어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4D 컴파운드를 적용해 그립력 극대화 및 주행 성능을 향상시켰고 표면이 매끄러운 사이드월 디자인을 통해 공기 저항을 낮추어 연비 효율도 높였다.

'엔페라 슈프림 S'는 최근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7세대 모델, '디 올 뉴 그랜저'에 신차용 타이어로도 공급되며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HELLO NEXEN NEWS 2

AI 빅데이터 소음 기술 적용한 노면 감지 및 타이어 제동거리 분석 기술 개발

넥센타이어가 지난 12월 AI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노면 감지 및 타이어 제동거리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넥센타이어는 이 기술을 통해, 향후 기후 환경 및 노면 조건에 따른 타이어 제동 로직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현대차·기아, 인하대학교와 함께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차량의 타이어 근접 소음 빅데이터를 연구해 노면 환경 자동 감지 기술을 구축했다.

먼저, 콘크리트, 신규 아스팔트, 노후된 아스팔트의 마른 노면 및 젖은 노면 등 다양한 노면 외부 소음을 AI 빅데이터 기술로 수집 및 축적한 후 방대한 데이터 결과값을 이용해 노면을 감지하고 타이어 제동 특성에 연결시키는 기술을 국내 최초 특허 출원 완료했다.

기존에는 노면의 소음에 따라 도로를 감지하는 기술을 차량의 제어 로직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 개발된 넥센타이어의 툴은 다양한 노면에서 250여 회의 주행과 30만 개 이상의 축적된 외부 환경 인자의 타이어 소음 데이터를 활용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빗길 및 타이어 마모 상태 등을 감지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자율 주행 차량이 다양한 노면 및 자동차 간 상호 마찰 특성을 스스로 분석하여 차량의 제어 성능을 최적화하게 된다.

Tire Road Noise

Road Detection → Braking Logic

HELLO NEXEN NEWS 3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제품 본상 수상

지난 10월 미국 '2022 IDEA 디자인 어워드' 컨셉 디자인 부문에서 넥센타이어의 '캉커러'와 '퓨어백'이 본상(Finalist)을 수상했다.
올해 42주년을 맞은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최하는 국제 디자인 어워드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글로벌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매년 디자인 혁신성, 사용자 경험,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넥센타이어의 이번 수상작들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KDM+(Korea Design Membership Plus) 소속, 제품디자인 분야 학생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나온 결과물로, 혹독한 기후 및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된 미래 컨셉타이어다.
먼저, '캉커러(CONQUEROR)'는 겨울철 빙판길에 특화된 트랜스폼 타이어로 평소에는 사계절 타이어의 형태를 유지, 스마트 센서가 미끄러운 노면을 감지하게 되면 트레드의 스파이크가 돌출되어 빙판길 주행 안정성 및 기동성을 향상시켜준다.
'퓨어백(PUREBACK)'은 타이어의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 타이어로, 트레드 사이의 흡입구를 통해 주행 중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실시간으로 중앙 캡슐에 저장해 효과적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HELLO NEXEN NEWS 4

부산디자인진흥원과 미래 컨셉 타이어 3종 개발

넥센타이어가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디자인진흥원과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한 미래 컨셉 타이어를 지난 12월 공개했다.
넥센타이어는 미래 컨셉 타이어 3종, 'BTR', 'Mearth', 'Nocturne'을 부산디자인진흥원의 KDM+(Korea Design Membership Plus) 소속 제품디자인 분야 전공 9명의 학생과 협업해 개발했다.
먼저, 'BTR(Born to Race)'는 구 형태의 내부 구조를 통해 타이어의 캠버(타이어와 지면이 이루는 각, Camber)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레이싱 전용 타이어로, 주행 코스에 따라 캠버각을 자유롭게 조절함과 동시에 개별 구조로 된 트레드 패턴이 안정적인 접지 면적을 유지시켜준다.
'Mearth(Mars+Earth)'는 우주 공간인 화성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디자인된 미래 트랜스폼 타이어로, 특수 소재를 통해 트레드 면적을 넓혀 주행성을 향상시키는 모드와 사이드월 구조가 돌출되어 화성의 척박한 땅을 개간할 수 있는 모드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적용한 에어리스 타이어 'Nocturne'은 고속 주행 시 타이어 소음을 효과적으로 상쇄시켜줄 뿐만 아니라, 차박, 캠핑 등 정차 시에도 작동하여 차량 주변에서도 최상의 저소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됐다.
개발된 타이어는 실물 모형(Mock-up) 제작 및 다양한 국제 디자인 어워드 등에 참가할 계획이다.

HELLO NEXEN NEWS 5

미국 프로하키팀 '시카고 블랙호크스' 후원

넥센타이어가 미국 프로하키팀 '시카고 블랙호크스'를 2022/23 시즌부터 세 시즌 동안 공식 후원한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는 미국의 인기 스포츠 리그 중 하나로, 넥센타이어는 지난 시즌부터 후원을 시작한 '애너하임 덕스'에 이어 올 시즌부터 '시카고 블랙호크스'팀도 후원한다.

'시카고 블랙호크스'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연고를 두고 1926년 창단된 팀으로 북미아이스하키리그의 초창기 팀들을 지칭하는 '오리지날 식스(Original Six)'의 멤버이기도 하다. 또한, '스탠리 컵(북미아이스하키 리그의 플레이오프)'에서 6번 우승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구단 후원으로 홈 경기장인 United Center 및 연습 경기장인 Fifth Third Arena 내 주요 광고 보드 및 옥외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를 알린다.

넥센타이어는 '시카고 블랙호크스' 팬 대상의 현지 소비자 이벤트 및 딜러 대상 경기 초청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북미아이스하키뿐만 아니라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시티', 이탈리아 세리에 A의 'AC밀란', 분데스리가의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등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오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HELLO NEXEN NEWS 6

미국 내 스포츠 마케팅 강화로 시장 공략 박차

넥센타이어가 미국 인기 스포츠 종목인 NBA, MLB, NCAA 등에 브랜드를 광고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작년 10월부터 2022/23 시즌이 새롭게 시작된 미국프로농구(NBA)의 LED 사이니지 광고를 통해 브랜드 노출에 나섰다. 'L.A.', '브루클린',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샬럿', '워싱턴 D.C.' 등에 위치한 6개 구단의 홈 경기 및 어웨이 경기를 통해 미국 전역에 넥센타이어 브랜드를 광고한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진행되는 2023 시즌 미국프로야구(MLB) 경기장 홈플레이트를 통해서도 브랜드를 알린다. '클리브랜드', '애틀랜타', 'L.A.' '뉴욕', '샌디에이고', '워싱턴 D.C.' 등에 위치한 6개 구단의 경기 도중 넥센타이어가 노출돼 미국 전역에서 인지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1월 개최된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남자 농구 가을 토너먼트와 내년 3월에 개최되는 컨퍼런스 토너먼트에서 브랜드를 노출한다.

미국에 R&D 센터 및 법인을 두고 현지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넥센타이어는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으로 미국 내 주요 인기 스포츠인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의 '애너하임 덕스'와 '시카고 블랙호크스' 구단을 후원하며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통해 브랜드를 알림으로써 두터운 팬층뿐만 아니라 각 팀 연고지 주민들에게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ELLO NEXEN NEWS 7

'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2년 연속 선정

넥센타이어가 지난 11월 열린 '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해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품질개선 등 품질 경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심사는 전략 및 관리시스템, 정보관리, 물류, 소집단·제안활동 등 13개 항목에 대해 최적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올해 총 39개 기업이 선정됐다.

넥센타이어는 심사항목 중 품질시스템, 제품개발 및 기술력, 고객만족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철저한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등 품질 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타이어 방문 장착, 렌탈 서비스 등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결과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여기에, 넥센타이어는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몰드 준비 공정 개선으로 작업시간 단축'이라는 주제로 출전한 창녕공장 생산팀 금형파트 무지개 분임조가 현장개선 부문 대통령상 은상을 수상했다.

HELLO NEXEN NEWS 8

'제15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소셜미디어대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11월에 개최된 '제15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소셜미디어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소통·마케팅 관련 시상식이다. 디지털 효과 측정, 고객 평가 및 모니터링, 전문가 검증 등 평가과정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넥센타이어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고객 참여형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하며 온라인을 통한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콘텐츠경쟁력지수, 인터넷소통지수, 인스타그램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고객만족도 종합지수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넥센타이어는 "고객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는 의미의 브랜드 슬로건 'We Got You'와 함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흥미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고객들이 브랜드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ELLO NEXEN NEWS 9

한국에너지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넥센타이어 품질보증팀 김준배 팀장이 지난 11월 17일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에너지효율향상 시책 및 홍보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준배 팀장은 정부의 에너지효율향상 시책 및 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2013년부터 적용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이 검증된 고효율 타이어 운영 및 시장 사후관리(등급사후관리, 표시사후관리)에 적극 동참하여 고효율, 친환경 타이어의 보급에 기여하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HELLO NEXEN MAGAZINE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사내 특별한
소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책임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 신년호 이벤트 참여

〈헬로우 넥센〉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단의 QR 코드 스캔하기

▼

이벤트 참여하기

▼

인적사항 기입

▼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프티콘 증정)

당첨자 확인과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NEXEN TIRE
OFFICIAL PARTNER OF
MANCHESTER CITY FOOTBALL CLUB
NEXEN TIRE
NEXEN TIRE
we got you

N'FERA supreme S

흡음재 & AI 테크놀로지 적용으로 극대화 된 승차감

마모되어도 최대한 유지되는 주행 성능

고성능 / 고하중 차량 최적화

더욱 좋아진 연비 효율성까지

NEXEN TIRE

we got you